

우방의 세계가 더 넓어집니다.

94년 한 해 동안 7천여 개 주택 건립으로
최고의 건설실적을 올린 우방-
을 한 해 주택건설 1만여 호 건립을 목표로
서민들의 생활비에서 부담심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건설 붐의 명성을 높여갑니다

국내 최고 타워인 대구타워를 건설한 우병의 노후화로 탄생시키는 세계적인 테마파크 숲, 물, 조경, 음악과 함께 최첨단 엔터테인먼트를 갖춘 도심속의 현대적인 테마파크로 역사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국제화 개발과 시대에 대응하여 국제 연구소를 설립 각종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및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한 결과 세계 최초로 천연 대식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성공한 우뚝 과학! 이에 따라 대응하여 개발한 우뚝의 불독 기술을 이제 세계로 수출한다.

국내 최초로 중국에 진출, 이미 중국에서 한국형 아파트를 보급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우방! 이를 발판으로 제2, 제3의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코리아의 건설시장을 세계로 넓혀갑니다.

밖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으로는 우량
개인의 자질을 높인다.
우병은 96년을 강양하선의 원인으로 삼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노하우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투자 개발을 통하여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정립한다.

생한국의 희망, 세계화의 희망 —
주식회사 우방

주요주주 (주)무명, 무명홀딩, 무명건설, 무명개발, 무명투자, 호신산업, 무명산업, 동공토건, G.M.A. - 동해고려, 구미전반개발, 무명호신개발

여상



95-10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부모님의 농어민연금보험료는 우리 자녀가 대신 납부해 드립니다



■ 효도연금을 보내는 방법

● 자동이체 대납

자녀가 본인의 거래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하면, 매월 말일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시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본인 통장 및 거래인장을 갖고 가야 합니다.

● 고지서대납

자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출장소에 연금보험료 대납신청을 하시면 납입고지서가 매월 자녀의 주소지로 우송됩니다

효도연금 보내기운동이란?

도시의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어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해 드리는 효도 실천운동입니다.

월간 여성

월간여성 10월호 통권334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④ 女聲

21세기,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이연숙

특집/제32회 전국여성대회

⑥ 특집/제32회 전국여성대회 치사

여성의 사회참여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김영삼대통령

⑧ 특집/수상자 프로필

용신봉사상·올해의 여성상

⑩ 특집/주제강연

경제 주체로서의 여성-21세기 생활전략/김광두

⑫ 특집/발제강연 ①

21세기 소비행태의 변화와 경제의식/이정자

⑭ 특집/발제강연 ②

21세기 삶의 형태 변화와 여성의 생활양식/성민선

⑯ 특집/발제강연 ③

21세기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지위 확보방안/차은영

⑰ 특집/결의문·건의문

제32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건의문

⑱ 특집/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한 나라의 여성의 모습을 통해 그 나라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⑳ 특집/여성의 주장 : 100초 발언대

실질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이 됩시다!

㉑ 특집/화보

제32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㉒ 회원단체를 찾아서

전도교 여성회본부

㉓ 초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육아지원 정책/신용자

㉔ 특별기고

새로운 가정상 확립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김기업

㉕ 매스컴에 비친 여성

방송 3사의 미니시리즈/김희천

㉖ 여성계 동향/이구경

㉗ 협의회 소식

㉘ 우리들의 광장



21세기,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이연숙 (본회 회장, 제32회 전국여성대회 대회장)

존경하는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과 내빈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여성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제32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여성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대통령 내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께서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 명예대표로 참석하심으로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문제임을 부각시키는데 공헌하시고 여성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금년 전국여성대회는 특히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세계에서 4만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한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는 21C를 향한 여성발전 계획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빈곤, 교육 및 훈련보장, 보건서비스, 폭력철폐, 국제적 갈등상황, 경제적 자립, 권력구조 및 정책 결정, 관련기구의 강화, 인권, 미디어의 역할 강화, 환경,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철폐에 이르는 12개 관심분야별 행동강령이 채택되었고 앞으로 각국에서 이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의 진척사항은 매년 UN에 보고될 예정인 바 우리 여성단체들도 이의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채택한 북경선언문은 인권의 차원에서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사회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함께 가정, 사회,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로비대회 이후 지난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여성의 권리면에서는 아직 세계 137개국에서 90위라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우리의 세계화 수준에 걸맞지 않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간 여성계는 각 분야의 의사결정권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발족시키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거행되었던 전국여성대회에서는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렇듯 여성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여성의원수가 기초의회 40명에서 72명, 광역의회 8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성계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여성발전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 양 정당에서 선거법을 고쳐 비례대표로 광역의회에 여성을 배려했기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수천년간 여성을 차별해온 결과 나타난 불평등의 치유책으로 일정기간 여성에 대한

올해의 여성대회는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이란 주제로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남성들과 같이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특별배려가 있어야겠다는 것이 북경세계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평등을 상당히 이룩한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보혁명의 21C를 앞두고 우리도 이제는 국민 모두의 능력과 재능이 골고루 개발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조치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여성대회는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이란 주제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창 의성이 요구되는 21C를 앞두고 창 의성을 말살하는 자녀의 과외공부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후대비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환경문제를 걱정해서 소비억제를 실천하고 있는지? 너무 일찍 출퇴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소비수준이 적절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또한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남성들과 같이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남녀는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균형잡힌 남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강연을 맡으신 김광두 교수님을 비롯한 연사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김향란 선생님께 용신봉사상을, 최초의 여성 민선시장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준 전제회 광명시장과 사법부에서 어려움을 헤치고 최초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신 이영애 부장판사에게 올해의 여성상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멀리 일본에서 20만 교포여성을 대표해 참석해 주신 권병우 민단 부단장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따뜻한 자매애를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회에서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우리의 아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결의를 더욱 다짐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성지도자 여러분께서 그 토양을 가꾸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활동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성의 힘을 하나로 하기 위해 먼길을 마다 않고 새벽을 달려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국의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여성의 사회참여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매우 절실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오늘 제32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하여 여성 지도자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연숙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정연심 대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판심평생을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여, 오늘 '용신봉사상'을 받으신 김향란여사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의 여성상'을 받으신 이영애 부장판사와 전제회 광명시장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분들의 두드러진 활약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고취하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단체들도 눈부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 건전한 소비활동과 환경보호,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도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를 여성으로 공천한 것도 여성단체들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서 우리 여성계 대표들은 범세계적인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여성운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여성지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인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훌륭한 자질은 가정운영과 자녀교육, 저축과 가족계획 등 여러분야에서 한국을 세계의 모범국으로 만들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의 우수한 자질에 비해 사회 진출은 아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과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여 줄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정보화와 첨단산업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산업에서 여성들은 이미 특유의 창의성과 감성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정부가 합심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과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힘은 위대한 것이며, 여성의 잠재력은 무한하기에 여성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며 활기차게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바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화 추진 보고회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의미있는 시책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용 방과후에 지도하는 제도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학교급식도 97년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수한 여성인력이 고급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으로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여성고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출산 등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여성고용을 늘려 나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재취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제도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여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바로 여성계가 합심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

급속한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화 노력에는 가정과 사회윤리를 중시하는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만 사회와 국가의 번영된 미래가 보장됩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윤리를 세우는 데 우리 여성계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의 힘은 위대한 것이며, 여성의 잠재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저는 여성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며 활기차게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회 용신봉사상 수상자



성명: 김향란(金香蘭)
 생년월일: 1916. 7. 20. (만 79세)
 현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3동 335번지
 직업: 대구전문대학 학장
 추천기관: 대한조산협회

학력 및 경력

1993 경북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1971 한국사회사업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1976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졸업
 1982~88 대한조산협회 회장
 1980~90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978~현재 구라난초회 회장
 1984~현재 한국BBS 경북연맹 부회장
 1961~현재 대구전문대 학장

수상경력

공적사항

1938~45 병들고 가난한 임산부의 조산과 간호에 힘씀(1,500여명)
 1950~53 피난민 수용소에서 피난민들에게 무료조산 실시(486명)
 1978~현재 나환자돕기
 1980~현재 벽지어린이에게 도서 기증
 1980~90 군·경 위문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
 1982~현재 불우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1989~현재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영세민세대, 생활보호대상자 돕기
 1961~현재 대구전문대 부설 노인대학을 설립 무료로 운영-경로사상고취
 1985~현재 제주영송학교를 설립 정신지체와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에 힘씀

제11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성명: 이영애(李玲愛)
 생년월일: 1948. 9. 21. (만 47세)
 현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 4동 807-7
 직업: 판사(대전고등법원)
 추천기관: 국제존타 서울클럽

학력 및 경력

1971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졸업
 1971 제13회 사법고시 수석 합격
 198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여성 법조인으로 최초)
 1995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여성 법조인으로 최초)

공적사항

여성으로서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관하여 사법부 및 사회 전반의 여성 지위향상에 기여



성명: 전제희(全在姬)
 생년월일: 1949. 9. 6. (만 46세)
 현 주소: 광명시 철산 3동 379
 직업: 광명시장
 추천기관: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

학력 및 경력

1972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1973 제13회 행정고시 합격(여성최초 합격자)
 1982 노동부 근로기준국 부녀소년과장, 부녀지도관, 직업훈련국장 역임
 1994. 4 광명시장 취임(최초여성시장-임명직)
 1995. 7 광명시장 취임(민선 시장-최초의 여성시장)

수상경력

1995. 6. 국가사회발전유공자표창(내무부장관상)

공적사항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임명된 후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 최초의 여성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높임.



김광두
(서강대학교수·경제학)

▶ 특집 주제강연

경제 주체로서의 여성 — 21세기 생활전략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21세기의 도래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계는 정치계, 정부 등에게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1. 21세기와 여성의 경제적 역할

21세기는 무한경쟁사회로 전세계가 급진전될 것이며, 정보화와 첨단산업화로 인하여 지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력은 체력에 근거한 남녀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요소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크게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도 정치적 민주화, 사회 개방·자유화, 소득 증가와 절대 빈곤 계층의 급감, 신세대 집단의 등장 등 대대적인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남성 우위의 기존의 가치관에서 서구식 합리주의와 뚜렷한 자기 주장으로 무장된 신세대 집단이 주도하는 남녀평등의 사회로 이행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의 수급구조를 살펴보면 인구 증가율의 하락에 따라 경제 전 부문에서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의 직업인 주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력으로의 진입이 요구된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경

제발전과 비교하면 더디게 나아지고 있다. 몇몇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적·제도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력 사회로의 이동,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인력난에 의한 여성노동력의 필요성 증대 등은 21세기에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 전망은 기존제도의 틀을 개선함이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 글은 기존 제도들 중 여성의 취업과 부부재산 공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실태

먼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현상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국여성의 사회활동실태를 세계 각국과 비교한 「여성의 사회활동 실태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들이 정치 및 경제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1백16개국중 90위를 기록, 중국(23위) 필리핀(28위) 북한(50위)

인도네시아(56위) 방글라데시(80위) 등 후진국에도 못 미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남녀평등정도가 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스웨덴이 차지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순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한 남녀평등지수(92년 기준)는 스웨덴이 0.919점으로 1위, 2위는 핀란드, 3위는 노르웨이, 4위 덴마크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0.901점)은 5위, 일본(0.896점)은 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0.780점으로 130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남녀평등지수는 소득구성과 평균수명, 문자해독율, 취학률 등 4개 지표를 토대로 개발됐으며 점수가 1점이면 남녀간 차이가 전혀 없는 「절대평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95년 9월 현재 2백99명중 6명으로 2%에 머물러, 30%이상의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권 국가인 쿠바(23%), 중국(21%), 북한(20%)보다 크게 뒤졌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년 37.2%에서 94년 47.9%로 10.7% 높아졌으나, 싱가포르(50.6%), 일본(50.3%), 미국(55.7%), 독일(5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20대에서 50대까지 꾸준히 지속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초반과 40대에만 적극 참가하는 쌍봉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9.6%(93년 기준)로 스웨덴(45.1%), 노르웨이(36.8%), 덴마크(34.4%), 캐나다(35.9%), 미국(32.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럼 여성취업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여성 취업

1) 필요성

한국의 인력난은 일부 생산직 뿐만 아니라 총량 부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월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인 1.8%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공급이 적는데 비해 노동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적인 측면 때문이다. 점차적인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따라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높은 노동수요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당분간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노동 수요가 하락하지 않는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손실은 2백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력이 주부 등의 유휴인력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 노동력 290만명 중에서 70% 정도나 차지하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산업 인력화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인력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여성 취업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수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고,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참여의식 증대, 주택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증가로 인한 맞벌이의 불가피 현상 등이 여성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 미래사회의 모습이 정보 산업화, 서비스 산업의 팽창 등으로 산업 구조가 소프트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 인력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문화사업이 발달하고 있어 여성 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 현황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92년 기준으로 47.3%로 미국 56.0%, 일본 50.7%, 싱가포르 51.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25~29세와 30~34세의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4년 각각 45.6%, 48.6%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결혼 및 자녀의 출산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성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주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주부라는 직업은 경제활동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생 중 가장 왕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와 고용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진입장벽, 동일한 조건에서의 남성과의 임금격차, 시간 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취업 형태 미흡, 기혼 여성을 위한 보육 시설의 미비, 교육제도부터 야기되는 직업훈련의 부족, 여성 자신의 인식부족 등이 원인이다.

3)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을 위한 구조적 해결책

우리나라 여성의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수는 65년 4만3천명에서 94년 33만명으로 8배 증가하였다. 특히 대졸이상은 3천7백명에서 8만명으로 22배, 대학원 졸업자는 34명에서 7천8백명으로 무려 2백30배가 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년 37.2%에서 94년 47.9%로 10.7%가 높아진 정도다. 사회적 시각으로 본 고등교육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한다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낮은 것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수백년간 이어져 온 사회관습을 깨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밑바탕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선으로써 먼저 여성의 고용을 의무

화하는 여성고용할당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의 목적은 조건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능력이 개발될 수 없었던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유엔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30% 이상의 여성할당제를 권고하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가 정착된다면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고용이 의무화되므로 여성고용에 있던 문제점들 즉 탁아소 제도나 재택근무제, 자유시간근무제 등이 확대될 것이다. 여성고용할당제의 반론은 기업측의 논리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할당제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을 시장논리에 맡기기에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관습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정보화 사회의 빠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속도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이라는 시각에서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육 시설의 개선, 확충이다. 여성은 문화적이거나 신체적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출산과 육아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육아는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 출산을 한 여성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아기를 맡아 줄 친척이 있거나 탁아소와 같은 사회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나



라의 탁아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계속해서 일할 의사가 있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은 여성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현상은 여성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나 앞으로의 당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사회구조는 제조업의 축소와 금융업, 통신업, 정보관련업의 증대에 따른 서비스업종의 확대로 변화되어 간다. 정보화사회의 정의는 대부분의 경우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와 관계되는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정보화 사회는 노동의 성격을 바꾸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학교교육 체계는 특히 여학생들을 정보사회의 유능한 인력으로 준비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아도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정보·첨단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전문가적 자질과 기법을 습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그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별도의 교육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이나 기업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늘어나는 취업여성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다.

여성에게 공업이나 산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의 변화는 미래에 필요한 전문 기술자의 잠재적 인력을 공급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은 공업이나 산업적인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훈련하여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부부재산공유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자.

4. 부부재산공유제도

부부재산공유제도는 소득세법상의 주부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세법상 소득세의 과세 인적 단위는 개인이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소득세법이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처럼 부인의 대부분이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가사관리 내지 가정관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때 남편의 소득에도 아내의 지분이 잠재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남편의 소득이나 아내의 소득은 부부가 공동 협력에 의하여 얻은 경제 가치이므로 남편의 소득에는 아내의 지분이 잠재해 있고 아내의 소득에는 남편의 지분이 잠재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2분2승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분2승제는 부부각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2로 나눈 다음 그 나눈 소득금액에 초과 누진구조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세액에 다시 2를 곱한 금액을 부부가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과세 방법이다. 예컨대, 아내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남편 소득의 절반을 아내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절반에 대한 소득세를 아내에게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부공유재산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와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부부재산공유제도의 경제적 논리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띠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말하

자면 대부분의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이 없다면 그들 남편은 경제적 부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민법처럼 부(남편)가 처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공동제하에서는 취업여성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성의 노동 인센티브를 하락시켰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은 혼인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취업여성의 재산제도의 불평등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여성의 대부분이 주부인 현실에서 개정된 민법이 여성의 실제적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여성들의 취업의 문을 넓히는 물론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해서 비록 재산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주부의 공동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현대적 의미로는 가사노동은 요리·청소·세탁·육아와 같은 가사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생활의 방침을 수립하는 것 같은 가사관리 또는 가정관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사노동의 경제성에 관한 논란은 대외적인 노동이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데 비해서 가사노동은 무상성·무보수성·비대체성 및 불명확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가사노동은 여성의 신성한 임무이며, 화폐로서 평가될 수 없는 숭고한 일이라는 미명하에 가시적인 노동, 가치적인 노동으로 평가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치중되어 왔다. 예를 들면 주부의 주관적 평가, 기회비용 방법, 가정부 대체비용방법, 전문직업인 대체비용방법 및 가정관리자와 단순노동자 대체비용방법 등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사노동은 얼마로 추

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재산상의 수치를 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다. 가사노동을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주부의 역할을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이 맡은 경우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각 가정마다 가사노동의 가치에 차이가 나타나고, 일정한 액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요리, 세탁, 양육 등의 단순 가사작업을 대체하는 비용으로 될 것이고, 최대한의 경제적 가치는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정관리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듯이 가사노동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부의 경제적지위에 관해 부부재산공유제도를 통해서 올바른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법정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제830조에서 제833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두 차례의 개정을 겪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제도 및 상속개시시의 기여분제도를 중요내용으로 하는 법정부부재산제를 갖추고 있다.

1) 부부별산제와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우리나라 구 민법은 일본의 구 민법을 모방하여 부(남편)는 처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공동제를 채택했으나, 우리 현행 민법은 일본 현행 민법과 같이 남녀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였다. 우리 민법 제830조 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831조는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제830조 2항은 1977년의 민법개정 전에는 부부의 누

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된 것을 개정하는 것인 바, 상당히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룬 개정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확정하기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런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 혼인도중 생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상 부(남편)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벌고, 처는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가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힘을 합쳐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고가의 재산은 소득이 없는 처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세법상의 이유로 대개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므로, 이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되는 바, 민법 제830조 2항의 적용이 더욱 어렵게 된다.

2)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와 상속세제도

현재 부부재산공유제도는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사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받는 재산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 만큼만,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배우자재산상속의 문제점은 민법이 결혼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를 인정함으로써 지분을 긍정하고 있다면 배우자간의 재산상속은 지분의 분할 취득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상속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1억원+1,200만원×결혼년수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유산을 축적함에 있어서 부부가 공동 노력한 부분, 그리고 주부의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음에 있어 불충분하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위의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란 양성의 합의에 따라 서로의 재산권을 확정짓는 것으로 자기의 재산권의 반환 청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증여세는 전액 면제해야 할 것이다. 이혼이외에 배우자간 재산 증여를 하는 경우는 배우자증여공제금액이라고 하여 3,000만원+300만원×결혼생활년수만큼 공제하고 그 이상의 재산에는 과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주부인 여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보면 배우자간 재산 증여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제도는 가정내에서 주부의 경제적 지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우자간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주부들의 결혼 후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은 세제 개혁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돈 관리를 포함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우리나라 관습상 주부에게 최소한 재산 절반에 대하여 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배우자간 재산상속에 대해서 완전한 면세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부부 재산 공유 제도의 핵심문제는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와 부부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주부인 경우, 가사노동을

생산성 있는 일로 여기지 않고 놀고 있다는 시각으로 파악하여 소득이 있는 남편의 재산을 불로소득으로 얻게 되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강세를 이루어 왔다. 한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론은 결혼을 한 이후에 얻게 되는 자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주부인 경우도 가사노동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므로 남편의 소득으로 구입해서 남편의 명의로 된 경우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얻게 되었다고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에서 지금의 민법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은 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성에게 정당한 댓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과소평가나 그외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경제적 방법으로 산출하기 보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부부간의 협력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 가정의 발전을 재산형성까지 포함해서 부부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5. 요약과 결론

앞으로 도래할 21세기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전세계적인 추세인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 가치관 변화에 따른 남녀평등사상의 대두로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백년간 이어져 온 가부장적 전통에 따른 사회적 인식이 단기간에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취업에 관한 제도적인 해결책으로는 여성고용할당제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할당제와 공무원 진급할당제 등 국가기관에서 선행되어야 사기업으로 전파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거나, 여성의 단순노동직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으나, 직능별·직종별·직위별 할당제, 훈련할당제와 같은 여러 수단이 고려되어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법제도상의 경제적 지위 또한 인식의 변화와 법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정된 우리나라의 민법은 혼인이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할 권리를 주고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부부공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은 여성에게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등록함에 있어 평등하게 보이지만 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거의 모든 재산이 소득이 있는 남편의 명의로 등록되므로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제는 될 수 없다. 실질적인 부부재산공유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내에서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주부의 경제적 지위가 실질적인 소득의 발생은 없더라도 남편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결혼이후의 부부의 소득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에 재산이전의 경우 부과되던 증여세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는 전액 면제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현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21세기의 도래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계는 정치계, 정부 등에게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정자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 특집 발제강연 ①

21세기 소비행태의 변화와 경제의식

21세기를 앞두고 정부는 여성의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가계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여성이 재산취득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질반을 넘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경제주체로서 잘 세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1. 한국의 소비수준과 소비경향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관련 통계 143개를 종합분석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1994년판)에서 국민들의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식생활비는 줄어 들고 교통·통신비, 교육·교양오락비 등은 꾸준히 늘어나 소비행태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가계소비 중 식료품비의 비중이 65년 64%에서 83년 39.5%로 떨어졌으며 식생활에서는 곡물류 섭취비가 65년 61.5%에서 93년 13.6%로 줄어든 점이 두드러졌으며 외식비는 65년 1.3%에서 93년 28.1%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82년 대비 93년의 지표는 교통·통신비가 155%, 교육·교양오락비가 1.39%이며 교통비 지출에서 특징적인 것은 월평균 교통비 지출에서 공공교통비가 약 40%까지 줄어든 반면 개인교통비는 11년 사이에 21배 가량이 늘어났다. 이는 자가용 승용차 보유가구 비율이 같은 기간 2.7%에서 30.2%로 11배가 늘어난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80년 기준으로 93년을 대비해 볼 때 주택보급율은 71.2%에서 79.1%로 증가했으며, 거주공간 규모도 가구당 건평이 80년 13.9평에서 90년 15.4평으로, 주

택당 방수는 같은 기간 2.2개에서 2.5개로 늘어났다. 반면 자가가구 비율은 80년 58.6%에서 90년 49.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1994년 8월 통계청의 발표에서도 우리나라의 소비구조가 일본, 미국 등 선진국형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소비지출 항목중 서비스 수요가 늘어 산업구조상 서비스 산업이 농업 제조업보다 우위에 있는 선진국형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가 99만원으로(63년에는 6,070원) 그기간 소비지출은 가구당 5.8명에서 3.8명으로 감소한 탓에 1인당 소비지출은 250배 증가했다. 93년 의식주 지출은 46.1%로 일본의 46.3%(91년)와 비슷하고 미국 35.8%(91년), 독일 49.0%(91년)의 중간치에 속해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닮아가고 있다.

교육비 지출은 지난 30년동안 2배이상 늘고 영화감상, 레저, 스포츠 등 교육오락비도 같은 기간중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비구조의 변화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 꼴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가 하면 재래시장보다 백화점에 더 많은 발길이 몰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추구

하는 신세대 소비자군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싸면서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는 합리적 소비행태를 보이면서도 주택마련보다는 자동차 구입 등 다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유대수가 인구 6.3명당 1대꼴인 7백만대를 돌파하면서 선진국처럼 여가확대에 따른 다량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해외여행과 내구재 과소비 등의 소비고급화경향도 보이고 있다.

II. 21세기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행태 전망

21세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행태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해 미래의 소비생활을 전망하는 [트렌드 21]은 21세기는 고도의 소비시대를 맞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평균연령이 높아져 청년사회가 성인사회로 탈바꿈하고 노년기가 20~30년 연장돼 실버층이 왕성한 소비의욕을 보이면서 사회는 새 국면을 맞는다.

지난 50~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중년층으로 자리잡고 실버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의 중간인 중년세대가 자신을 재발견하려는 신중년세대로 부상하면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출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생활은 풍요(riches), 성숙(ripeness), 여유(rest) 등 3R을 중시하고 상품을 고르는 기준도 大小輕重에서 好樂美趣 등 주관적인 개념으로 바뀐다고 한다.

식생활은 간편하고 편리함을 선호하면서 가공식품, 외식수요가 폭발하고 패스트푸드점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며 전통음식은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개발돼 빠른 속도로 수요층을 넓혀갈 전망이다. 건강지향성으로 건강식·영양식이 속속 등장하고 식도락이 고급화·전문화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스페셜 레스토랑을 찾는 발길도 늘어날 추세다.

가족이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기회가 줄면서 식생활이 공식(共食)보다는 個食형태로 바뀌고 그대신 가족 전체가 특정일을 정해 식사모임을 갖는 소위 「가족교류형 가족식」이 보편화되는 식생활의 양분화 현상이 전망된다.

의생활은 디자인·색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모방패션 대신 스스로 패션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이른바 「패션 데모크라시」 현상이 가속화할 추세다. 옷을 고르더라도 의상의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보석·액세서리·시계·화장품·가방·핸드백·잡화 등의 조화와 배합을 고려하는 토탈패션을 추구하게 된다. 실질적인 기능과 가치를 중시하는 신탐리주의가 강해지는 한편 환경·레저·전통·건강의 개념을 접목한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주생활은 단순한 주거보다 개성과 쾌적함을 추구하면서 오디오, 비디오와 PC, 헬스기구, 유아놀이기구, 사우나실, 시스템 주방, 홈 인테리어를 갖춘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원주택·콘도·리조트·별장·오피스텔·스튜디오 등을 활용하는 복수주거시대가 열린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엌·세탁실·유아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단주택과 독신을 위한 오피스텔·스튜디오 초소형 임대아파트, 사설기숙사의 급부상으로 예견된다.

특히 미국·동남아·호주 등지에서 추진되는 것처럼 지하와 하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1~2백층 짜리 빌딩을 짓는 수직도시시대도 예상된다.

레저생활은 삼림욕·자연탐구역행은 물론 그림, 도자기 등 직접 손으로 제작하는 수공취미와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낵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요트 등 자연과 밀착할 수 있는 스포츠가 각광받을 전망이다.

주말 농장에서 농산물을 직접 가꾸어 거두고 수공예·꽃글씨 등 창작물을 발표하거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레저산업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소비추세는 선진국 소비시장에서 탈 20세기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방만했던 과일 소비에서 벗어나 실속을 되찾으려는 반성이 한창이고 일본도 거품경제의 환상이 꺼지고 분수에 맞는 소비행태가 자리잡아가면서 21세기 소비시장의 판도와 라이프 스타일이 새롭게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고학력, 전문직종으로 무절제한 도시생활을 즐기는 여파족이 더이상 전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덤피와 트위너가 각광받는 추세이다. 덤피(DUMPIE: Downwardly Mobile Professional)는 수입이 줄더라도 가족위주로 단란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직장까지 바꾸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트위너(Tweener)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돈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중시하는 부류를 지칭한다.

덤피와 트위너는 여파와 달리 고급차 대신 실용적인 차를 구입하고 최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값싸고 좋은 음식점을 찾으며 사치스런 생활보다 저축에 비중을 두고 부모의 사랑과 우정·가치관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이 미래를 이끌어갈 새 인간상으로 주목받는 이들 신세대는 물질주의·소비욕·승진 등에 대한 환상을 깨고 인생의 즐거움·행복과 단란한 가정에 비중을 싣는 심플 라이프를 추구한다. 백화점보다 디스카운트 스토어나 양판점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이에 맞춰 업계에서는 상품가격은 물론 기능·서비스를 종합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바벨류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신제품=고성능·다기능이란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단순성능」제품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거품체질을 버리고 실질과 건실한 소비생활을 중시하는 각성으로 「성숙자」 「전실 소비」라는 말도 자주 등장한다. 탈감성·탈트렌드의 시대를 맞은 셈이다.

거품에 대한 반성은 미래의 소비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소비규범이 90년대의 과소비·편리성·차별화에서 21세기에는 경제성·실질성·사회성·분수지향으로 옮겨가고 성숙한 소비자가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품을 만들면 팔린다는 식의 대량생산=대량소비 공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납득시켜야만 하는 「납득형 소비자」가 신소비문화로 정착할 것이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재수정이 불가피해 부품교환만으로 신상품 기능을 발휘하는 이른바 「버전업」 상품처럼 가치를 중시하는 시각을 갖춰야 한다.

III. 국가발전전략에서 보는 21세기 10대 위기

21세기에 한국의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대통령 자문 「21세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다는 만약 발생할 경우에 그 영향이 매우 커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전쟁(핵전쟁 포함)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전면전의 위험은 냉전 종식과 함께 크게 줄어 들었고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때보다도 감소되었다고 하겠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최근에 와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다시 야기시키고 있다.

두번째가 지구적 환경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지구환경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 현상이 언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으나 21세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러한 지구환경의 문제가 전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번째가 에너지 위기이다. 제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여러나라의 유가상승에 대한 적응력은 상당히 커졌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제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유에 대한 현대 문명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또한 원유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많이 부존되어 있기때문에 제3차 석유파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번째가 경제블록의 등장이다. 미·소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국가간의 경쟁이 군사·정치로부터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EC·미국·일본의 3대 경제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번영을 누려왔으나 EC, 북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아시아 경제권과 같은 배타적인 경제블록이 형성된다면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미국과 일본이 서로 배타적 블록을 만들거나, 또는 이들 양자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섯번째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들고 있다. 북한체제가 인민봉기나 쿠데타 등으로 인하여 와해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한에 대단한 충격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가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경제마비를 들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태이고 도로 항만 시설의 부족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자동차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1990년대에 도로, 항만 등에 투자를 해 놓지 않으면 경제마비가 올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일곱번째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활환경이 나빠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소득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아직은 한국의 공업화의 역사가 짧아서 회복할 시간을 놓친 것은 아니므로 생태계 보존의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공기오염이 심각해서 노인이나 병약자의 건강에 위협을 주게되고 마구 쓰고 버려서 쓰레기 장이 없고 또 강이나 바다의 오염, 그리고 토양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하여 동물은 물론이고 인간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어 기행아가 나올 정도면 사회적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

여덟번째, 경쟁력 약화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을 들고 있다. 경쟁력의 약화는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국내 생산활동을 저하시켜 결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생산성 향상은 노동숙련도의 증가, 시설투자, 기술수준 향상이라는 세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이 모든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자가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투자, 기술개발,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적절히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아홉번째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사회 불안과 계층간 갈등을 들 수 있다. 소득 및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상당히 높다.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적개심은 특히 강도가 높다. 현재로서는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 및 재산소득에서의 격차가 분배구조에서 더욱 문제이다.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열번째가 도덕적 타락과 기강해이로 인한 범죄와 사회무질서이다. 어린이 약취 등 잔인한 행위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치안부재의 상태가 오지 않도록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가 요구된다.

국가발전전략은 1990년대에서 내다본 21세기의 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여성들에게도 발전 전략이며 생존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성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라고 하고 나라의 발전을 여성이 같이 떠메고 갈수있는 여성의 여건을 만드는 일 또한 21세기를 잘 이겨내는 정부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IV. 21세기 사회환경 및 의식의 변화 전망

2020년의 한국사회는 전혀 새로운 사회환경이 될 것이다. 인구규모는 연소인구의 급격한 감소, 생산인구의 완만한 증가, 노년인구의 급속한 성장 등 커다란 구조적 변모를 겪게 될 것이다. 독신주의, 핵가족화, 무자녀 또는 소가족화 현상 등이 더욱 뚜렷해지고 전통적인 3세대 가족형태는 거의 소멸되고 노인가구의 분리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가족단위의 부양기능은 대부분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한국사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도시사회로 변모하면서 도시 농촌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겠지만 생활격차는 줄어들고 생활양식도 보다 비슷하게 될 것이다.

산업구조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2차 산업은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자본·기술 집약적 형태로 바뀔 것이다. 경제구조는 고부가가치의 고도기술산업 또는 정보산업이 주축을 이루게 되어 생산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게 될 것이다.

전문직, 기술직,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지면서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소득수준의 향상 및 분배구조 개선으로 중산층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대부분이 중산층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및 계층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자의식의 변화,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등 의식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생활정보망의 확충 및 자동화로 가사노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경제수준의 향상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소비생활 유형은 양보다 질 위주로,自作보다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고도산업사회화 및 도시화에 따라 주택, 교통, 범죄 등 주거환경은 더욱 비인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존, 세대격차, 소비자

보호, 성범죄 및 마약, 정신건강 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정보화와 더불어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언론은 대중적 모습으로부터 보다 전문화, 다양화한 형태로 바뀔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정보접근 가능성을 높일만큼 높여줄 수 있지만 정보접근에 대한 개인적 차이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미래 사회 가치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인권 또는 인간성 존중이 될 것이다. 인간존중의 가치관이란 인간을 단순한 상품생산의 수단이나 지배의 대상

2020년의 한국사회는 전혀 새로운 사회환경이 될 것이다. 인구규모는 연소인구의 급격한 감소, 생산인구의 완만한 증가, 노년인구의 급속한 성장, 독신주의, 핵가족화, 무자녀 또는 소가족화 현상 등 커다란 구조적 변모를 겪게 될 것이다.



으로서가 아니라 고유한 가치의 원천이자 창의력의 주체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에는 양적, 물적 관계보다 질적·비물질적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시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생태학적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환경주의가 새로운 신념과 가치관으로 등장할 것이며, 복지 및 여가를 보다 귀중한 가치목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원리가 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21세기 한국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으로 사고하게 될 것이며 경직된 정형적 획일적 태도가 아니라 연성의 비정형적 다원적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사회발전이란 성원들이 보다 평등해지고 자아실현의 기쁨을 누리고 보다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발전의 상당 부분은 가치관 및 인식의 문제이며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삶을 중시하게 된다. 생활의 만족은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생활환경의 쾌적함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심리적 충족감에서 구하게 될 것이며, 이때 발전의 개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사회발전의 정도는 곧 개인적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요정책 방향이 경제성장이었다면 21세기의 발전정책의 비전 방향은 바로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할 것이다.

V. 21세기 삶의 질에 대한 기대

2010년 한국의 물리적 즉 가시적 삶의 질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서는 현재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소득부문은 179, 환경부문은 160, 복지부문은 18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약 165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기대치는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국가발전 방향이 지난 20년과는 달라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환경과 복지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20년 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는 정책수립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전체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득 부문의 투자는 환경이나 복지부문 투자에 비해서 한계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질 향상은 상당부분 만족도에 달려있는데, 기대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VI. 발전전략의 기본방향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및 상황적 변수들에 대한 논의들을 요약한 결과 사회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지속적 경제성장과 분배구조 개선, ②사회복지 환경의 확충, ③환경보전과 대체에너지 개발, ④과학기술의 발전, ⑤민주시민 사회정착, ⑥인간존중의 가치관과 문화적 기본권 보장, ⑦한민족 공동체 형성 등이 될 것이다.

삶의 물리적 여건에 관한 네가지 과제는 지속적 경제성장, 생활환경 개선, 사회복지 확대, 과감한 환경투자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가시적 측면의 삶의 질 향상 전략은 문화적 측면의 풍요로움,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만족감 및 자아실현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수 없다. 민주시민사회 정착,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문화적 기본권 보장, 한민족 공동체 형성 등은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며, 정책이나 투자만으로 단기간에 성취될 수도 없다.

사회성원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자발적 시민운동이 정책적 합의형성을 위한 중요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평등한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 물질적 풍요에 더하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이 사라지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때,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며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VII. 세계환경 변화

2020년까지 세계질서의 구도에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본다. ①기술혁신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정보혁명은 컴퓨터가 일상화하고 또한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사용됨에 따라 더욱 진전될 것이다. 이는 다시 통신혁명을 가져오고 그 결과 세계 여러나라 간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혁명과 다국적 기업이 활동, 세계적인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 상호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화를 물고가는 요인 중에서 정보혁명,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통합전략추진, 소비문화의 확산 등은 특정 국가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경없는 세계경제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②지구적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향이다.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열대림의 축소 등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국가간의 갈등,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지역적으로는 중국의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성비 등의 피해가 한국과 일본에서 더욱 커질 것이며 황해의 오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VIII. 21세기의 국가 비전과 목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국력 수준과 삶의 질을 달성하며, 새로운 세계역사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인 인간자원을 양성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으로 살

만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 진출을 가속화하고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여 국제화·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킨다.

앞으로 30년의 의미는 성장의 추세를 이어 나가면서, 동시에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생긴 모순을 교정하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장만을 추구하던데서 벗어나 이제는 복지나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부가 혼자 밀어붙이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과 민간부분의 자율성에 의해서 함께 움직이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외형과 하드웨어 위주로 움직이던 조직들도 이제는 내실과 소프트웨어(지식,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체보다는 개체,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중심으로 상대적인 사고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지구촌 안에서 다른 민족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가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30년간 한민족이 성취해야 할 과제는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어떻게 북한체제의 붕괴를 잘 관리해서 남북한 국민들의 회생을 최소화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통일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 ② 지구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의 불확실성 아래서 통일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며, 나아가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독립성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 ③ 어떻게 고도성장 기간 동안의 모순을 제거하면서, 성장의 추진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좀더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 ④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합리적인 성숙된 국민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나아가서는 지역 및 계층간의 갈등을 풀어서 화합된 나라를 만들 것인가로 결론짓고 있다.

IX.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

덤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21세기의 도래는 정신을 가다듬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미래에 예견되는 여러가지 변화의 범위를 설정해 보고 그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 체질을 만들어 적절한 역량배분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 가계, 기업, 정부 등 여러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설계하고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전체의 그림이 모자이크를 잘 이루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의 주체는 대단히 중요하며 각 주체의 역할은 국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국민의 절반이라는 점에 항상 자존심과 권리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중요한 존재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을 때에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작용이나 역작용을 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자신의 존재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경제주체로서의 여성, 21세기의 생활전력이라는 제목에서 여성이 21세기를 대비하여 한국 경제의 주체로 역할을 하겠다는 새로운 책임의식을 담고

있다고 하며 21세기를 굳이 내세우는 데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진다.

세계 경쟁 속에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국민으로서 보람을 가질 수 있을지를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는 각 주체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을 수렴하고 또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각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주고 행동에 변화를 가하는 일이 총체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일 것이다.

여성이 주체라는 의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은 경제운영에서 벗어나는 모든 분야의 활동에 대하여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관심과 간섭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가계의 운영자로서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이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이끄는 일을 할 수 있고 기업 분야에서는 고용자 또는 피고용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있고 또 기업활동의 대상으로서 소비자의 위치를 잘 지키는 일이 있겠다. 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는 현명한 소비생활을 통하여 국내적 또는 지구적 자원 배분과 환경보전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

다음에 경제주체로서는 납세자의 권리가 있을 것이다.

세금은 국가의 운영자금이다. 가정 살림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하고 살림을 잘못하면 가족 간에도 간섭과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통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납부한 거대한 세금이 어떻게 국민복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따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세금이 적절히 쓰이고 있는가를 관심갖는 일은 우리 당대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의 생활여건에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산의 낭비와 소모를 가리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의 집행을 이루어 내는

역할을 해야한다.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은 한국이 세계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이 국내적으로는 건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때 기업은 국제경쟁을 이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엄격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길 뿐 아니라 기업이 나태해 지고 중국에는 세계경쟁에서 밀려나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은

- ① 경제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가계·기업·정부·국가의 운영에 막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 ② 가계의 직접 운영자로서 경제지식을 높이며 실속과 분수에 맞는 경제생활을 실천하며
- ③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맞추기 위해 과학 기술과 정보화 사회를 알아야 한다.
- ④ 지구적 자원 배분과 환경보전에 기반한 경제의식을 강화하며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자로서 충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 ⑤ 국민의 안녕과 사회정의를 위해 세금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납세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 ⑥ 국가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새로운 자세를 가지는 것이 새 세기를 맞는 자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남녀를 구분하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벗어나 통합적 시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여성의 경제주체적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과 시장 그리고 정보분야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권의 보장과 산업구조 재조정 과정에서 우선 피해자가 되는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가계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국가의 공식 통계에 계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성별격차를 좁히기 위해 여성이 재산취득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절반을 넘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경제주체로서 잘 세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1세기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존재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파괴를 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생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특히 물질면에서는 자원을 아끼는, 즉 적게, 작은 것을 오래쓰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

▶ 특집

발제강연 2

21세기 삶의 형태 변화와 여성의 생활 양식

21세기를 맞아 여성들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조화시키는 삶, 변화하는 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등을 담당해야 한다.

I. 서 언

북경(北京)에서 열렸던 제4차 유엔 세계 여성 대회는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책임 및 권리를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음을 천명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여성들이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북경 회의는 21세기를 살 여성들에게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남녀 평등의 성취라는 과업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셈이다.

한편, 우리들이 잘 아는 복지국가 영국에서는 메이지 수상이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무너지고 있는 '전통적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전업 주부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담은 가족보전 정책을 발표하였다(중앙일보, 1995. 9. 20).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과 함께 나온 이 정책은 전업 주부를 둔 가정이 사회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는 복지국가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부족한 개도국들은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로 나가야한다고 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를 이미 오래된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처럼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는 나라의 여성들은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선진국처럼 이른 것도 없이 지레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살 21세기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말한대로 정보와 지식(기술)이 자본을 대신하는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 모두 시대의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기능이 아닌 과학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술은 정보화 사회의 정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제하여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그러한 사회가 되어서도 집안에 전업 주부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다면 전업 주부처럼 좋은 것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더욱 좋기로는 그러고도 남녀가 평등해지는 것이다. 아마,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때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성들이 차별이 심하다면서 남성과 여성의 자리를 바꾸자고 제의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남성은 기술을 가졌는데 여성은 그렇지 못해서, 즉 기술 수준에 남녀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여성들이 차별되는 새로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을 가진 남성들에 대한 기술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의존도는 경제력을 가졌던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기존의 의존도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남녀 평등을 성취해야 한다면 이는 여성들에게는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지상 과제까지 가진 우리로서는 이래저래 다가오는 21세기가 여성들에게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도전과 위기는 물론 여성들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은행(IBRD)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 경제기구는 북경 회의가 열리는 동안 보고서를 발표하여 "남녀 불평등은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정부는 더 이상 여성에 대한 투자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각국 정부의 여성에 대한 투자를 촉구한 바 있다(동아일보, 1995. 9. 13).

II. 변화하는 삶의 조건들

우리보다 거의 한 세기를 앞질러 살아 온 선진국들이 겪은 20세기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지금 뒤따라 겪으면서 다가오는 21세기의 회오리 바람도 서서히 맞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들이 보강될 경제력을 바탕으로 좀 더 당당해지고 자아를 성취하며 독립적이 되고 그리하여 여성이 집단적으로 증대된 정치적인 권한을 획득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여성들은 이제 여성들하고의 경쟁을 넘어 남성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고, 가족의 보전이라든지 자녀 양육에서의 책임과 같은 중요하고 권위있는

역할에서 스스로 은퇴하여 조그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변화하는 삶의 조건들을 살펴본다.

1)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대

요즘의 자기 주장과 소신이 강한 신세대에서 이미 잘 보여지듯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 욕구와 자기 주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즘 취업 준비생 대학생들의 휴학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 여행, 자원 봉사 등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기다움을 세우고자 하는 실용적인 가치관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자각도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는 개인주의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 속에 가족주의가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었기 때문에 가족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타협된 개인주의'가 발달할 것으로 기대 또는 전망할 수 있다.

2) 결혼 연령의 연장과 독신자의 증가

사회의 남녀 평등 가치관, 높아진 교육열과 남녀간의 증대된 경쟁력,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 등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게 하며 일을 위해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혼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소위 혼인 적령기라는 사회가 기대하는 전통적인 중매를 거부하는 사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점차 배우자의 선택을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으로 하려는 개성이 존중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정이나 혼인을 절대시하지 않고 그 대안들을 사회와 일에서 찾을 수 있게 된 사회 여건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만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3) 소자녀 또는 무자녀 가족의 증가

현재로서는, 소자녀 운동이 정착된 가운데 소자녀를 둘 바에 아들이 있어야겠다는 아들 선호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도기 현상이고 앞으로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차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남성의 사회화와 여성의 사회화가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풍조도 강화될 것이다.

4) 빨라지는 가족 해체의 속도

소자녀 가족과 사회적 일이라는 대안이 있는 곳에서는 이혼이라는 결혼 생활의 해체도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혼 후에도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가족을 해체하고 대신 다른 노력을 새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가치관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혼이 쉽게 조장될 수 있다.

5) 여성 취업의 증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수록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관이 개인중심적이 될수록 여성들이 자아의 실현이나 자립을 위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여성이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업 주부나 남성 의존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점차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능력 본위의 사회가 되면서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경쟁을 통하여 때로는 여성들간의 경쟁을 통하여 취업이나 직업 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고 비록 시간제일지라도 여성들의 취업은 점차 정형화되어 갈 것이다.

6) 남녀 가사 역할의 변화

요즘 남자들의 가정내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소위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성의 취업은 집안내 남녀 역할의 변화와 심지어 권력, 리더십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남녀의 가사 역할이 보다 평등한 협업이나 분업으로 전이될 것이 분명하다.

7) 아동 양육 책임의 사회적 비용 증대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남성뿐이 아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나 가족이 아닌 남들에 의해 양육될 처지가 되었다. 여성이 취업으로 가정을 떠나 직장에 나가게 되면 종전의 여성의 몫이던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이 여성과 남성으로 확산될 뿐 아니라 부모들만의 힘으로도 안될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인근 마을의 보육기관을 통한 자녀 양육의 책임이 사회적 비용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여성이 집을 떠나 있는 것이 반드시 아동에 대한 애정 결핍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동의 올바른 양육이 어려운 경우 그 희생자인 아동은 물론이고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8)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 증폭

가족내 부양이 예전과 같이 집안의 며느리나 딸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물론, 개인주의 가치관이 늘어나면서 가족주의의 전통이 미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노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생존 기간이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부양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녀들이 다수가 되고 집에 남아 있는 자녀들이 있거나 만아들의 의무감 같은 것이 남아 있어서 자녀들간에 주된 책임자가 있거나 책임의 분산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소자녀들이어서 그만큼 노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9) 심각한 노후 문제와 가족 관계의 갈등

노인 문제는 노부모 뿐 아니라 늙어 가는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 대한 효와 공경만을 강조했지, 어떻게 노화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노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아직 없다. 설혹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없고 노인들 스스로도 어떻게 적응해야 할 지 혼란이 잘되어 있지 않다.

남편의 정년 퇴직 후 자녀 문제가 홀가분할 때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연장되어 왔던 갈등이 있는 부부일수록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그런 계획된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평생을 참고 사는 여성들이 많은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 지대는 아니다.

III. 여성들의 바람직한 생활 양식

우리는 과연 어떤 21세기의 삶을 살아야 할까. 물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며 여성들이 보다 자유로운 삶을 택할 것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서구로부터 좋은 것은 배우고 그네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 제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줄 수 있는 행복을 복지제도가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좋은 자원과 전통을 지키고 가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과업을 이루는데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생활 양식의 몇 몇 대안을 들어본다.

첫째, 남녀 평등의 가치관을 대 남성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지 말고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남녀가 따로 따로 할 때 낼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힘을 창출하는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는 소위 시너지(Synergy) 효과를 말한다. 부분들이 독립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의존성을 높여 전체로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시너지 원칙에 따르면, 남녀는 배타적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소외와 고립을 방지할 수 있다. 시너지는 바로 남녀 공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며,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 여성 모두와 남성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진정한 남녀평등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둘째, 개인주의와 가족주의를 조화시키는 삶이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족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개인에게 돌아온다. 가족주의는 개인보다는 가족이 먼저라는 약점이 있지만, 우리 문화가 향유하고 있는 좋은 전통이고 민족적인 자원이다. 가족주의는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인주의와의 양립이 가능하다. 개인주의는 흔히 잘못 이해되어 이기주의로 통용되고 있는 듯하나, 사실은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만큼 책임과 자율이 강조되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가족주의와 조화를 못 이룰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가족주의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인 것이다. 문제는 가족의 이름을 내세워 개인을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게 억압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얽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것은 치료의 대상이다.

셋째, 직업과 가족을 병행하여 사회적 역할과 가



정적 역할을 끌고루 경험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둘 사이의 택일이 어떤 다른 하나가 줄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양자를 병행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 잘할 수 없거나, 어떤 한 가지는 잘하기를 포기한다면, 이 역시 온전한 성장과 발달과는 거리가 멀다. 길어진 인간 수명에서 볼 때 직업은 언젠가는 은퇴하는 것이고, 가정도 언젠가는 축소되고 해체되는 것이다. 살아야 할 긴 시간의 과정 속에서 볼 때 인간은 어떤 하나의 역할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으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유능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혼란 말이 되어버린 슈퍼우먼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다. 가정 안팎에서 능력 있는 소수의 여성을 슈퍼우먼이라고 부르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탈(脫) 슈퍼우먼, 즉 모든 여성들이 다 같이 능력을 발휘하여 능력있는 사람이 곧 평범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야겠다는 뜻이다.

넷째,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선결 과제이다. 여성이 남성에 일반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들과 지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배우의 속도가 빨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과 가치관의 세대 차이가 아닌, 지식의 세대 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다면 지식 근로자가 이끌어 가리라는 21세기에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여성들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21세기 후기 정보화 사회가 그 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단단한 준비를 하여야 했고, 그것은 배우고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런 준비가 없다면, 직업에 있어서도 남성 직종이니 여성 직종이니 하는 이제까지의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남성들에게 새로운 형태로 종속되는 위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여자대학에 공과대학이 설립되는 현상은 바람직

하며, 공과 대학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시설 단체들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여성 스스로 노화에 대한 준비를 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설계하도록 한다. 아무리 대단한 복지 국가라 하더라도 노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처럼 노후 보장책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빈곤 계층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평생취업을 하지 않았던 여성 노인들의 빈곤은 더욱 심각하다. 빈곤 문제 뿐 아니라, 노후의 건강 문제, 질병의 위험은 노후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여성들은 노후의 경제 대책과 노후에 보내고 싶은 삶의 양식을 위해 젊어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필요한 일이다. 평생 학습자가 되어 관심있는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습자가 될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여섯째, 여성이 가족 속의 안주를 떠나 사회를 위해,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며 봉사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손으로 그리고 여성들의 힘으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환경보호, 소비자 권리 옹호, 사회 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한 사회 운동, 질서 지키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보호의 손길을 펼치는 일 우리 문화의 맥을 일상적인 삶의 맥락 가운데서 지켜 나가는 일 등등. 물론 이런 일들이 여성들만의 할 일은 아니고 남자가 공히 할 일이지만, 유희 인력이 여성 가운데 많다면 여성들이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전업 주부인 여성들에게 실제로 남아도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낮 시간 동안 그들이 백화점 등의 고급 식당을 장악하고 있는 기이한 그 광경 하나 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여성들이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여 인간 관계를 나누는 가운데 사회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봉사하는 사회

봉사(흔히 자원 봉사라고도 한다)를 한다면 그 성과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자원 봉사 운동에 제일 먼저 나서야 할 대상은 물론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돈과 시간이 남아돌아도 할 일이 없는 중산층의 여성들과 노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국가적 과업이 있다. 그것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지상과제를 앞두고 통일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국가의 선진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시킴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인데 곧 경제생활의 주체, 문화 생활의 주체로서의 역할이다.

통일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비용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마련하여야 하나,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한 때에 각 가정에서는 쓸데없는 과소비를 지양하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 양식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어려운 때에 대비하고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경제 발전의 혜택을 보는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낭비적 소비 형태는 그 위험 수위가 이미 높운데 그러한 자세는 반성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투기보다는 저축을 하여 산업 발전에 쓰이도록 배려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

선진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좋은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나쁜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일텐데, 우리의 좋은 문화 쪽은 어둠에 가려 있고 외국의 것을 함부로 모방하는 풍조가 있다. 의·식·주와 문화 생활의 장(場)에서 우리의 좋은 것이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것을 찾고 갖고 닦아 후손들에게 전해 주는데 여성들의 역할은 지대하다.

IV. 결 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컴퓨터 기술과 초고속 정보 통신 체계, 우리를 소리없이 엿어대는 유무선 통신망과 매체들은 우리의 삶의 형태에 거센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재택(在宅)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방 안에서 컴퓨터 하나 만으로 국내외의 최신 정보를 검색하고 인쇄할 수 있다. 은행이나 도서관에도 갈 필요가 없으며, 교통난도 저절로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보다는 기계와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고 기계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인간 관계는 소홀해지고 메마르며, 인간으로서 올바른 성장을 저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좁은 자기 방을 문화 공간으로 하여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는 사람이 주인된 인간적인 사회, 풍요로운 정신이 이끄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다.

정보를 다루고 지식은 있으나, 정신이 메말라 인간으로서의 성숙함과 현명함을 갖추지 못한 기계적인 인간상이 출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여성들은 기계가 지배하는 기계 문명 사회 속에서 과학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포기가 아니라 인간의 복지와 인간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인간 웨어'(Human Ware)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경제학)

▶ 특진 발제강연 ③

21세기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지위 확보방안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남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성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상의 개선과 의식의 개혁과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역량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요구된다.

1. 서론

10년만에 열린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가 9월 15일에 폐막되었다. 지난 10년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욕구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름아닌 경제문제가 남녀 동등권을 향한 발걸음의 가장 기본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소련과 동구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 그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각국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국의 이익증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있다. 최근 여러나라에서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경쟁 등은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이러한 세계화와 더불어 정보화로 대표되는 산업사회가 될 것이다. 정보산업에 의해 국가경제의 미래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자율성과 다양성의 원리가 강조되고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감성적 섬세

함이 요구되는 다원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산업인력과 산업사회발전에 따른 가사노동의 자동화로 중대된 여성들의 욕구는 여성인력의 적절한 활용 없이는 미래경쟁사회를 헤쳐나갈 수 없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은 그 나라의 인적 자본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여성을 다가오는 사회의 필수적인 경제주체로 보고 여성고용할당제, 남녀고용평등법 강화, 의무적인 공직배분 등의 정책을 통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직자의 20%, 장관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39%이다. 미국은 여성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가들이 여성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인력의 중요한 공급자,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경제주체로 보아 각종 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여러

통계자료를 통하여 진단해 보고,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비용,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의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경제적 지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9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사회활동수준은 전체 42개국 중에서 4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8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각국여성의 사회활동실태를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정치 및 경제활동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116개국 중 한국이 90위를 차지, 중국(23위), 북한(50위), 방글라데시(80위) 등의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순위(38위)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다.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2%로 30% 이상의 북유럽은 물론 공산권 국가인 중국(21%), 북한(20%) 등 보다는 크게 뒤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4년에 47.9%로 65년 37.2%에 비하면 10.7%포인트가 증가했지만 미국(55.7%), 일본(50.3%)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는 20대에서 50대까지 꾸준한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초반과 40대에만 적극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문·기술·행정관리적 종사자 비율은 9.6%로 스웨덴(45.1%), 노르웨이(36.8%), 미국(32.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52.2%로 OECD 국가 중 일본(43.6%) 다음으로 남녀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여성에 관한 통계자료 「여성취업」(92년)에 의하면 전체 여성 취업자중 대졸이상 여성의 취업율은 9.1%인 반면 전체 남성 취업자중 대졸이상 남성의 취업율은 18.3%였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미혼이 65.1%, 기혼이 34.9%인 반면에 남성근로자는 미혼이 25.9%, 기혼이 74.1%로써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관리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은 남성이 10.6%, 여성이 0.5%로 나타나고 있어 각 기업체의 여성인력 활용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94년 「여성통계연보」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근로자의 54.6%로 1980년 42.9%에 비해 상승한 것이나 여전히 절반가량이다. 남녀임금의 차이를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이하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대비 90.2%이나 30~34세는 68.7%, 50~54세는 45.8%, 60세이상은 48.6%로 점차 차이가 커진다. 직급별 분포를 보면 관리자층은 남성이 11.6%, 여성이 0.7%여서 약간씩 증가했으나 남성의 증가폭이 1% 포인트인데 비해 여성의 증가폭은 0.2% 포인트에 그쳤다. 기혼여성 유업인구중에서 6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여성이 84%이고 0~2세 자녀가 있는 여성이 5.2%, 3~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이 8.3%, 둘 다 있는 여성이 2.8%로써 자녀가 어린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낙후된 상태이며 심지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진 국가들보다도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는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질적으로 보면 전문기술직 비율이 매우 낮고, 임금도 선진국들이 남성의 70~80%인데 비해 60%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대부분은 무직급으로 관리자층에는 거의 고용되지 못하고 고등교육여성의 취업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3. 차별의 사회구조적 요인과 사회적 비용

(1) 사회구조적 요인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지식이 중요해지므로 전통적 대가족제도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만족이 더 중요한 개인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생활형태도 다원화되어 당연시되던 관습을 따르기보다는 고정된 유형이 없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자유로운 생활형태를 갖게 된다.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별적 역할분담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주체로서 일과 경제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고질적인 성차별적 구조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유교적인 제도에서 비롯된 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적 자녀양육, 그로 인한 남녀간의 기대성취도의 차이, 남성중심적 제도와 법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켰다.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을 갖는 여성은 여성답지 못하고, 사회조직내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는 용납할 수 없고,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우리사회의 관습 때문에 여성은 생산성이 낮고 직업의식이 결여되고 사회성이 없어서 경제의 주체적 역할을 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왔다.

임금정책, 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 등을 비롯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대부분 남성의 입장에서 입안되고 실시되는 가운데 여성을 더욱 통제하고 종속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데 일조했고 법과 정책의 적용에 있어 여성은 주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결과 보상 대신에 직·간접의 피해를 이중으로 입는 경우가 많았다.

(2) 사회적 비용

고용과 승진에서 직장내의 성차별은 심각한 실질적 비용을 유발한다. 무능력한 직장동료가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능한 여성을 제치고 승진할 수 있는 사회, 학교 선후배, 직장동료들과 스스로 없이 늦은 저녁까지 술자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성과 직업의식을 높이 평가받는 사회, 같은 학력과 능력을 갖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이 받는 보수의 반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의 근로여성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와 투철한 직업의식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만족이 더 중요한 개인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며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제주체로서 일과 경제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것인가? 은밀하고 무의식적이고 다분히 관습적이기까지 한 직장내의 성희롱은 이러한 여성으로부터 아예 일에 대한 의욕을 박탈한다. 성희롱은 여성의 의욕상실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제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당함은 생산성의 감소와 비효율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여성들이 취업 후 출산으로 취업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여성이 스스로 취업활동을 포기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받게 된다. 기업은 결혼과 출산으로 가사와 육아문제가 생기고 가사와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자 소임이라는 판단하에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직을 권고하게 된다. 또 여성을 같이 일하는 동료보다는 사무실의 꽃집으로 생각해서 가능하면 미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하에 사직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게는 기업에게 크게는 사회전체에 커다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신입사원의 모집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별 이익없이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채용한다면 양질의 인적자원으로 훈련시키는 비용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비용만 계속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다시 재취업하게 한다면 숙련된 전문인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 기업도 새 인력의 채용과 훈련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다.

4.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변화해 가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남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성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상의 개선과 의식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동시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역량을 심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 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육아 및 탁아문제

여성의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기혼여성의 대부분은 자녀를 갖는다고 할 때 임신, 출산, 육아문제의 해결은 여성인력활용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는 한 여성 또는 한 가정의 개인사항으로 취급되어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비용으로 부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는 국가경쟁력의 근본인 인적자원의 생산이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국민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전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모성휴가(Maternity Leave)외에도 1993년 가족휴가법안을 통과시켜 남성들에게도 자녀출산 및 양육을 위한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가능하게 하였고, 승진을 위한 심사에서도 출산을 한 경우 1년을 유보해 주고 있다. 독일은 산전, 산후 유급휴가외에도 정부에서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자녀양육휴가를 아버지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산전산후 2개월 유급휴가, 육아휴직 등이 사적비용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차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모성의 권리를 사회복지차원에서 수용하여 휴가비 보조지급이나 세제상의 감면혜택 등이 주어져야 한다. 일정기간의 출산 및 육아휴가가 여성근로자의 취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야 하고 남성의 군복무처럼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성휴가나 부모휴가가 직장에서 어떤 형태의 불이익으로도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혼여성의 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역시 탁아문제이다. 핵가족 시대의 탁아문제는 전문적인 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여성의 평생고용을 유도하고 국가의 인적자원 보호라는 점



에서 양질의 지역택아, 직장택아, 가정택아 시설에 관한 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택아비용, 대체가사노동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2) 시간제근무 및 여성고용할당제

정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등장과 함께 근로형태도 각자 개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종일근무를 일정한 작업장에서 하던 방식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에 대한 욕구 증가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제근무나, 자신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으로 신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근무장소가 굳이 직장일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성을 단순히 직장에서 보낸 시간으로 계산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시간제근무가 저임금과 일체의 후생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여성인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산업 또는 직종에서 채용과 승진 인원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노동시장의 차별중 채용·훈련·승진 차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녀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유엔은 사회 각 분야에서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저임금기업군과 남성보조적 직종이나 저임금직종에 집중되고, 기업내부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하위직에 머무는 등의 차별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3) 환경개선과 직업교육

여성을 생산성이 높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동료들간의 분위기가 쇠신되어야 하고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여성들에 대한 기대성취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에서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주와 더 나아가 국가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이유는 전통적 가부장제나 가사와 육아부담 외에도 직업교육 및 재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남녀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니라 능력과 취미에 맞게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직업관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일과 직업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직업관 교육, 남녀차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평등교육, 직업선택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교육 등을 여학생들의 집중적인 진로지도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장기인력수급계획과 미래지향적인 직업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연구기관이 취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혼여성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일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학력에 상관없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지를 몰라서 대개 좌절하게

된다. 경제활동에 참여의사가 있는 주부유휴노동력의 산업인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가 주부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재교육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기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여성에게 요구되는 의식의 변화

여성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그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야 한다. 각종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이나 법과 제도의 개선보다도 여성자신의 의식변화가 우선해야 한다. 단순히 남성의 보조적 역할로서, 남성의 보호대상으로서 안주해 온 여성들은 이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주체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훈련을 쌓아야 하고 투철한 직업관이 필요하다. 조건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능력이 개발될 수 없었던 여성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무능력한 여성을 무조건 채용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은 만연된 사회·문화적 성차별을 불식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를 교육시키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남녀성차별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6. 결 론

세계은행은 최근 공개한 '세계의 국부(國富) 평가보고서'에서 천연자원, 생산된 자산, 인적자원 등 3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1인당 부(富)를 평가하고 동시에 각 요소별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했는데 한국은 홍콩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비중이 전세계 192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굳이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 뿐이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21세기 무국경 경쟁시대의 생존과 세계화 선진화는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통적인 남녀차별의 사회관행과 노동시장의 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열악하고 불평등한 경제적 지위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제도와 의식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여성의 결혼기피, 만혼, 출산을 저하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여성인력의 자원화와 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실시는 이제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직결됨을 모두가 공감해야 할 때이다.

제32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새로운 각오로 제32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지난 10년간 여성의 지위는 몇몇 측면에서 향상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회 각분야에 남녀 불평등이 존재함으로써 인류의 복지증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세계여성대회의 결론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에 남녀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21세기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빈곤, 교육, 보건, 폭력, 전쟁 및 갈등상황, 경제, 정책결정, 관련기구, 인권, 미디어, 환경, 여자어린이에 관한 12개 분야의 행동강령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여성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환경에 적응하고 전문자격 자질함양과 기능을 습득하는 등 능력개발에 힘쓸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의 생활설계와 경제대책을 위해 나와 이웃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경제주체로서의 우리 여성은 물질의 가치가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식하여 기존의 재산관이나 소비의식, 소비행태를 바꾸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납세자로서 국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감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5. 10. 12.
제32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제32회 전국여성대회 건의문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열린 제32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여성지위 향상과 세력화를 통해 평등, 발전, 평화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한 베이징 선언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각계에 건의한다.

- 우리는 사회의 각계 각층이 남녀를 차별하거나 구분하는 분리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통합적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특히 여성의 경제주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업에서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시각에서 고용 및 승진, 직업훈련에서의 일정비율 여성할당제를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 정당은 내년 4월에 실시될 총선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고 이들 여성후보자를 적극 지원할 것과 전국구 의석의 전부를 여성에게 배당할 것을 촉구한다.
- 정당은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기업주는 여성의 직업 의욕상실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직장내의 성희롱을 근절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과, 정부는 성희롱 추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는 남녀평등의 정신에 위배되는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하루속히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인력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점을 직시하여 탁아시설의 확충, 탁아비용 보조, 탁아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방과 후 학교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학교 급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취업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모성보호제도에 따르는 비용을 사회적 부담금 성격의 공적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부부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제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1995. 10. 12.
제32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 특집 /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다음은 전국여성대회 행사 중 본회 이연숙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만나고 싶었습니다'를 녹음본이한 것입니다.

▶ 사회: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분은 전 과거처 장관이셨던 이상희박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가 나오기까지는 이상희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상희박사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남녀평등 정도는 130개국중 37위이지만 여성권한척도는 9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이상희위원장: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감사드립니다. 사실 역사발전의 단계에서 보면 근

대화과정에서 근대화, 산업화가 늦어진 것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역사의 큰 줄기가 바뀔 때 우리 사회는 양반이다, 상놈이다 하는 사회계층의 벽을 깨지 못해서 결국은 산업화가 늦었습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앞으로 정보화는 앞서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녀 성별의 벽을 깨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으므로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여성의 문제는 남성의 문제이고 국가발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나라의 여성의 모습을 통해 그 나라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도, 한 나라도 주부의 모습이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 가정과 그 나라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방안은 보다 우리 아들, 딸들의 내일을 위한 역사의 시각에서 여성이 가져야 될 더 큰 책임감을 느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 사회: 이번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10대 과제를 만들 때까지는 굉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무회의를 하여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면 전부가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통해 10대 과제를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이 10대 과제가 성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예상하며 추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이위원장: 이번에 10대 과제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정보화사회가 되면 사무자동화, 가사자동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근무자동화로 연결되며 이제 선진국의 지표는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달려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 여건 조성이 첫째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육아문제, 노부도·병약자의 부양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둘째로는 취업률 등을 보면 남자들이 상당히 유리한 통계수치로 나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회, 정책결정을 하는 고위직, 기업의 경영관리층 등 중요한사결정을 하는 곳의 여성 참여가 거의 미미합니다.

중요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은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에 여성에게 가산점을 5점을 두도록 하고 또한 여성들이 신문기사를 위시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면접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비율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반영하여 면접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이상희 박사님께서 이렇게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 이위원장: 제가 13대 국회때 출마를 했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법에 의해서 우수한 인력, 돈의 흐름이 나라발전의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선거에 떨어진 후에 남성조직은 온 데 간 데없이

어졌고 여성조직이 슬픈, 애달픈 일들을 모두 뒷바라지 해 주었습니다. 이런 계기가 있어 여성인력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사회: 위원장님이 우리나라 여성에 대해 갖는 여성관과 한국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이위원장: 아마 기독교의 우화속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여성인 이브를 만들었다 하여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 하나에서 만든 것이니까 남성이 우성이라는 의식을 상당한 수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카고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의학적인 연구를 한 것을 보면 수정이 되어서 어머니 몸속에서 1개월 남짓됐을 때 그 염색체의 유전자 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남아가 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여아로 출생한 겁니다. 결국은 발생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브의 갈비뼈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면 남성이 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인 객관적인 입증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에게서 출생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성들이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그릇된 생각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이 끝나면 국방대학원에서 국제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제가 21세기 국방정책발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방분야도 정보체계에 사람의 신경에 관련된 분야는 여성이 앞으로 해야될 분야를 확보해야 우리의 국방력이 증강된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 사회: 이위원장께서는 김대통령을 여러번 독대해서 설득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요. 김대통령의 여성관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위원장: 이번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은 어제 세가지 보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여성문제보고, 지역발전에 관련된 보고, 문화사업에 관련된 보고였는데 이 세가지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실 때 보니까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강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문제를 남성의 문제, 국가발전의 문제로써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으니 여성에 관련된 어려운 사회적 벽을 김대통령께서 그 특유의 돌파력으로 앞으로 더 돌파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할당제를 주장하다가 고용목표제도로 후퇴한 것 같은데 고용목표제의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위원장: 고용할당제는 전경련에서, 특히 산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인력의 경쟁력이 있는데 여성의 근무연수는 남성보다 훨씬 적는데 고용할당에 대해서 여성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환경분야에는 50%가 여성이고 프랑스는 내각의 12명이 여성장관이며 스웨덴에는 50%의 여성장관이 있고 이스라엘은 군의 전략 핵심부에 여군이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여성의 잠재력을 재개발하고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재교육을 하고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장애를 배제해 준다는 이런 부분은 아예 생각지 않고 제기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경우에 고용할당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우선은 고위직에 여성진출의 길을 텃다던가 또 전반적으로 UN이 제시하는 30%까지 도달할 때까지 여성들에게 최혜국대우를 해서 여성들이 사회진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할 때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겠다는 것이 여성사회참여 확대방안의 큰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이번 10대과제 중에서 가장 반대가 심하고 난항을 겪은 항목은 지금 그 항목인가요? 그밖에도 몇 개 더 있습니까?

▶ 이위원장: 역시 경제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으니 경제부분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생리휴가라든지 하는 부분은 여성 스스로 과감히 시

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영역확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직장에서 철저한 직업의식을 좀 더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스스로도 생각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 21세기는 3F시대라 합니다. 즉 Female, Feeling, Fiction의 3F시대에 대비해서 인구의 50%인 여성인력이 양질의 인력공급원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는 것이 이윤극선생의 10만 양병론에 해당하는 우리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산업에 다소 마이너스가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산업계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이 이해가 되었것 같습니다.

▶ 사회: 일부에서는 생리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십시오.

▶ 이위원장: 사실 사업주가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런 부담을 하는 것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법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오히려 정부의 공공자금, 국민복지연금 등에서 대치시켜 주어야 사업주의 직접적인 저항이나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니겠는가하여 출산휴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근무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고 또한 가정은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으로 봐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출산의 부분은 역시 무급이 아니라 국민복지연금으로 하든지 사업자의 부담에서는 배제하되 정부 부문에서 역시 부담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안이 굳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 산전산후 휴가에 대한 보상을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위원장: 의료보험은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니 출산이라는 것을 질병과 관련짓는 것은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재정 전체로 볼 것 같으면 계속 마이너스 추세이므로

의료보험 쪽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려면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여성의 출산등의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중체적인 연대를 어떻게 안정되게 보장해 주느냐하는 점에서 뒷받침되어야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사회: 국가의 조성여건은 영토와 국민인데요. 남성들이 맡고 있는 영토를 지키는 일 군복무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생산하는 여성들의 출산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성들이 전부 출산을 안 할 경우 국민은 수입해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요?

▶ 이위원장: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일은 역시 출산이라고 봅니다. 출산이 없으면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방예산보다는 건강한 아들, 딸들의 출산을 위한 예방국방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다음선거에서 여성을 어떻게 하면 15%라도 의사당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인데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위원장: 유럽의 일부국가들은 공천을 할 때 남성 여성 구애하지 않고 한 성비가 75~80% 이상으로 공천하면 안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치관계법을 한 성비가 75~80%를 넘으면 안된다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 마지막으로 젊은여성, 중년여성, 노년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위원장: 평균수명도 여성들이 5살정도 높고 자녀출산은 물론이지만 자녀교육을 하는 것도 여성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가정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도, 한 나라도 주부의 모습이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 가정과 그 나라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대한 국민이 되는 출발은 바로 여성에게, 주부에게,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며 또한 여성의 사

회참여확대방안은 여성의 일종의 사회적 지위향상이라기 보다는 보다 우리 아들, 딸들의 내일을 위한 역사의 시각에서 여성이 가져야 될 더 큰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서로 힘을 합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명: 이상희(1938년 9월1일생)

현 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조선일보 21C정보화포럼 대표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총재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한국과학영재학회 회장
한국컴퓨터그래픽스협회 회장
녹색실기술경제연구원 이사장
영성산업인간발전협의회 위원장
중국 흑룡강중의학원 명예교수
중국 청화대학교 명예교수

학 력

1955년 부산고등학교 입학, 대입검정고시
197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박사
1973년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변리사 자격획득)
1976년 미국조지타운대학 Law School수학, 미국특허청 심사관과정 수료

경 력

1976년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담역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 대우교수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1988년 과학기술처 장관
1990년 한국기계연구소 이사장



실질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이 됩시다!

▶ **홍은숙**(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여성부장) : 지난 10월 9일에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근로자 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직장 여성들은 임금이나 승진등에 있어서 많은 차별들이 개선은 되어왔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신인사제도 등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등이 금지될 수 있는 법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 **임영옥**(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 전쟁시대입니다. 우리는 GNP 일만불을 바라보면서 약간은 해이하고 안일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허리끈을 졸라매고 근검, 절약하며 우리 농민들의 근심을 풀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도 농간의 직거래도 하며 더 나아가 외국 농산물의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농산물을 애용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 **정경애**(한국성폭력 상담소 간사) : 여성이 경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입니다. 직장 여성의 87%가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성희롱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두통 등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포기했을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상담소에서 성희롱 예방비디오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계신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홍보도 해 주시고 구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필원**(안성여자기능대학 학장) :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성의 10대과제, 이것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각 지방별로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을 어떻게 열매맺도록 할 것인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 보며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건의해 봅니다.

▶ **김인규**(국제존타서울클럽 회장) :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요구나 건의 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요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를 어떻게 남성과 똑같이 실천할 수 있을가에 대한 각오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주장뿐 아니라 의무를 다시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강경화**(여협 국제관계위원, 세종대 교수) : 오늘 언급된 여성의 10대 과제,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실행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여성단체들이 많은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큰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지가 행정부를 통해서 관철되는데는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저항을 잘 뚫 수 있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국회에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을 많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 **안정원**(테니스협회 회원) : 저는 내년 15대 총선에 진주시 갑구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기때문에 여성단체뿐 아니라 인근 시·군의 저희 선배들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해방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우리 여성들은 한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 의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하기 위해 운동원으로서 여자가 여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순**(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오늘의 모임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모임이지만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서울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들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일과 같은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 부터는 여기에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책자에는 시도여협의 활동상과 회장 프로필 등의 것을 할애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 **이정옥**(테레사몬테소리어린이집 원장) : 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진출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육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아반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영아반 시설의 확충, 용변처리의 개선등을 통해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의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정숙자**(이북5도 황해도 부녀회장) : 해방된지 50년, 분단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남북통일이 묘연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의 잿더미 위에서 이만큼 나라를 부흥시켰지만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남북통일이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성단체 지도자 여러분! 여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상과제인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심과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 **고기효**(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 21세기에 통일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첫째는 우리의 8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을 이루기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다운 마음으로 감싸주면서 통일의 기수는 우리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성종숙**(한국부인회충진군 지부장) : 저는 현재 11년째 땅 5만평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매는 점점 줄어가고 쌀은 점점 팔 수 가 없어 작년에는 땅 5만평을 팔아서 대아와 팔아줬는데 콜레라 때문에 사먹는 사람이 없어 소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염소 100마리를 구입해서 산에다 방목했는데 중국산이 들어와서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사람들은 설 길이 없습니다.

▶ **이인숙**(국제존타서울클럽 회원) : 오늘 대회의 주제는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인데요,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의 생활전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저희는 소비를 하는데는 인색하지 않은데 저축율은 몇 년전보다 상당히 떨어졌다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것만을 사고 남은 돈은 저축을 좀 더해서 실질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이 되려고 합니다.

▶ **장영선**(세계평화회 회장) :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

젊은 여성들을 인신 매매단에 팔고 강간을 하고 매춘을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한 자들은 엄벌한 처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통일이 저희의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도 통일분과위원회가 빠졌기 때문에 이를 또한 만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북한 여성도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저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 최재희(제11회 용신봉사상 수상자): 저는 제11회 용신봉사상을 수상했는데 93년도까지는 역대 수상 자석이 앞자리에 있어서 역대 수상자들끼리 만나고 '용신회'도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상자석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조동민(여협 조직관리위원, 한국여성노후문제연구회 회장): 이제까지 정치, 사회, 경제 등에서 여성의 자리를 찾자고 큰 소리도 하고 공감도 하고 했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정 뒷 방구석에서 홀로 외로이 계시는 우리 노후의 어머니들을 잘 보살펴 드리자고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김영자(대한간호협회임상간호사 부회장): 요즘와서 저희가 주력하는 것이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입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고 있지만 국가의 제도적인 방침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제에 불량식품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에도 포도에 색소를 넣어서 건강에 많은 장애를 주었다는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FDA 즉 불량식품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수자(국제여성승공연합 회장): 남한은 민주사회로서 경제적으로 세계 11위에 오르기까지 경제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될 때에 북한의 여성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반찬값 천원에서 만원까지 떼어서라도 북

한을 위한 저금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경제적으로 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순중(천도교여성회본부 총무부장):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각각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 종교분과가 있어서 남북 교류와 세계 종교교류에도 교류 역할을 해서 종교간의 화합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룰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금자(대한간호협회전북지부 사무국장): 오전에는 강당안이 꽉 찼었는데 현재는 많이 비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위해 버스를 대절해서 새벽 4시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왔는데 전 일정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떠나는 것은 한국 여성 지도자 자질의 문제입니다. 일년에 한번씩하는 행사인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전의 키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박봉선(춘천시 여협 회장): 강원도는 물 좋고 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환경이 깨끗하게 보전되어야지 건강한 사회가 지속될 것입니다.

▶ 윤용숙(여성문제연구회 회장): 저희 연구회에서는 높은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바른 문화가꾸기운동 즉 바른 마음 갖기, 바른 말하기, 바른 행동하기, 그리고 환경가꾸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에서 회원들이 행사장 주위의 환경을 청소했는데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혹시 떨어진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행동을 통해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에서는 참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운동을 실천수행했다는 것을 널리 선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특집 / 화보

제32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대회전경



단체기 입장



이연숙 회장의 대회사



김영삼 대통령의 치사



용신봉사상을 수상하는 김현관 학장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는 이영애 부장판사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는 전재희 공명시장



주재강연



"만나고 싶었습니다" 초청인사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발제강연



결의문·건의문 채택



북경 세계여성대회 보고를 하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회장



여성의 주장: 100초 발언대 모습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는 지난 70여년 동안 독립운동, 개화운동, 의생활 개선운동, 여성계몽운동, 자학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활동해 왔고 현재 전국에 65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본회 소속 정회원은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천도교여성회본부는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가 일본의 탄압을 받아 교회 운영이 몹시 어렵게 되었을 때 천도교를 다시 재건하고 단합하여 우리나라 개화의 앞장을 설 것을 계획하며 1924년 3월25일 창단되었다. 지난 70여년 동안 독립운동, 개화운동, 의생활 개선운동, 여성계몽운동, 자학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활동해 온 본회는 현재 전국에 65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본회 소속 정회원은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본회는 규약과 규정이 있는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령을 갖고 있다.

1. 우리는 오관과 사계명을 철저히 행함으로써 후천개벽의 새 인간으로서의 인격향상을 기한다.
2. 우리는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을 생활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궁한 번영에 기여한다.
3. 우리는 보국인민, 포덕천하, 광제창생함으로써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기여한다.

본회의 조직체계는 천보경 본부회장과 이성자 부회장, 김보일 부회장 및 감사 2인과 6인의 부장(총무, 포덕, 사업, 교화, 조직, 재무), 고문 5인, 21명의 상임위원과 49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회원의 자격으로는 18세 이상의 천도교를 신봉하는 여성교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이 된다.

본회는 일세교조 수운 최제우 대신사님의 시천주(侍天主)사상을 이어 받아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각 지부에서는 본부에 준하여 여러 활동을 펴고 있다.

다음은 본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여성전용 전인교육 수도장건립

제이세 교조인 해월 최시형 신사가 여성 내수도를 위하여 "내척 내수도문" 범문을 반포한 경북 금릉군 구성면 용호리에 내척 내수도문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1995년 4월 25일 여성회전용 수도원을 위한 낙성식을 가졌고 지난 9월 27일에는 개원 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간의 화합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봉사사업

꾸준히 고아원, 양로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재해를 당한 어려운 교인을 돕고 있다. 또한 신체 장

애자 봉사를 위하여 20여개 지부의 회원 5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국립재활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농산물 사용사업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신도불이 운동의 일환으로 10여년전부터 참기름과 메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자연환경보호사업

본회는 자연을 부모님 모시듯 하라고 하신 법설을 지켜오고 있는데 우선 우리의 성지와 유적지의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유 활용으로 비누를 만들어 판매, 사용하고 있다.

▲지부와와의 유대사업

본부에서는 각지역 지부를 연중 계속적으로 순회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산품을 교류, 판매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고 지도자 교육,

바자회, 성지순례, 자원봉사 활동 등을 지도하고 있다.

제작된 "천도교 여성회 70년사"가 천도교 창립 70주년을 기하여



▲교회홍보사업

천도교 여성의 자질 향상과 수도로서 도의 완성, 자아완성의 교본으로 "신앙과 여성" 교리 독본을 발행하여 교화, 지도하고 있으며 1985년 창간된 "여성회보"가 발행되어 현재 격월로 신문이 나와 포덕활동과 소식지로 전국에 배포되고 있다.

또한 천도교 70년 역사를 모아

기념으로 발행되었다.



▶ 초점

다음은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럽 등 여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육아지원 정책

— 주요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

신용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업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공보육시설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딸린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의 여성의 지위는 여러가지 면에서 세계 제1을 나타내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 여성의 노동력화와 육아지원정책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 내용의 골자는 「여성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 「학부모 중심의 공동육아협동조합설립」, 「방과후 아동지도의 전국 확대」 등 10개 항목으로 여성이 가사와 육아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부담을 줄이고 직업활동에 열중하여 직업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한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업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공보육시설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딸린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의 여성의 지위는 여러가지 면에서 세계 제1을 나타내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79년 UN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남녀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한단계 올라가고 성숙되어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책임과 권력의 분담」 등으로 사실상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킨다는 목표로 「잠정적인 특별조치」를 취하여 각 분야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명실공히 「여성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하는 풍성한 여성정책이 경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대통령이 즉시 수락하고 차질없는 수행을 독려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발전을 위하여 극히 고무적인 일이며 세계화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당연한 것이다.

여성의 취업증가촉진정책과 육아지원정책의 강화는 비례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함수관계에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시로 여성의 직업적 성취와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자신의 직업적인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여성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여성의 결혼과 출산·육아가 직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때 여성들은 결혼자체를 기피하거나 출산의 기피 또는 자녀출산을 극소화,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인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한 여성이 가입연령

(15~49세)기간에 출산하는 출산아수의 평균치인 합계특수출산율이 2.1이상이면 인구의 확대재생산이 되고 그 이하이면 축소재생산으로 인구는 차차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1980년대에 와서 서구 선진공업국에서는 합계특수출산율이 1.50 수준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많이 나타나 인구감소 염려의 비상이 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둘러 출산과 육아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편리하고 다양한 내용의 보육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돌보아야 할 어린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육아지원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부담을 가정(부모)과 기업(고용주)과 사회(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부담하는 방법으로 양친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이 휴직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도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양친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육아지원정책의 추진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출산율의 증가현상을, 프랑스는 감소현상의 정지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가족지원정책이 부진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엄격한 교리의 가톨릭국가이지만 이탈리아는 1983년의 1.53이 1989년에는 1.29로 스페인은 1983년의 2.07이 1989년의 1.30으로 크게 줄어 여성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한 육아지원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더욱 요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하여 성립된 EC(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6개국)는 발족당시부터 남녀동일 임금의 원칙 등 남녀평등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오늘의 EU에까지 발전하여 왔다.

EC는 1993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장통합을 단행하여 유럽연합국가(EU)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가맹국가도 현재는 12개국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EU는 '90년대에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를 “보육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인식으로 보육철학과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을 「보육의 사회화」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역사적인 중대한 도전에 대비, EC위원회는 1986년에 「보육전문가 Network」를 설치, 보육정책의 방향과 틀을 잡는 실무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을 위하여 「Network」는 EC전지역내의 보육현황을 실제답사, 조사연구등을 통하여 가맹국의 보육정책에 제공할 수 있는 권고를 담은 방대한 분량(300쪽)의 보고서를 작성, 가맹국에 배포했는데 이 보고서가 지직한 바에 의하면 “보육의 사회화는 남녀의 고용과 가족책임 및 기회균등을 조화롭게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유효한 조치는 EC전체에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복지증진을 촉진시키고 가맹국의 단결은 물론 EC전체의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과 전망을 하고 있다.

EC는 '90년대의 「육아」는 사적인 것에서 사회적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보육 서비스의 부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자원낭비와 노동력의 비효율적 사용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어린이의 생활의 질과 복지증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보육에 관한 모든 정책은 어린이의 Needs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EC가맹국들은 「일과 가족책임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다양한 방법의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다른 나라의 육아지원 정책

1) 영국

아직도 보수적인 전통을 중요시하는 영국의 보육시설은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다양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은 개인적인 해결에 맡기고 있다. 영국은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양친이 직장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의 보육문제는 0~5세의 취학전 어린이와 취학한 어린이의 방과후의 감독 및 이를 위한 시설에 관한 문제이다.

영국의 탁아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공공탁아소이고 둘째는 사용자(고용주)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직장탁아소이며, 셋째는 비영리 자선단체나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사립탁아소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립탁아소인데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조부모나 친척 등 연고자나 이웃이나 친구등 아기의 엄마가 주변의 가까운 사람의 손을 빌어 탁아를 의뢰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차일드·마인더(child minder)라는 「직업탁아모」인데 이들은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경우로 한사람의 탁아모가 5명의 아이까지 맡아 돌볼 수 있다. 셋째는 상류층이나 상·중산층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 내려오는 「에보개」로 「Nanie」라 불리는 피고용인이 있다.



공공탁아소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80년대 말에 취학전 아동 350만명 중 1%밖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직장탁아소와 지방자치체가 운영하는 탁아소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건축재정정책때문에 시설과 운영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1990년 현재 자기집에 아이를 데려다가 돌보는 child minder에 의하여 보살피고 있는 어린이의 수는 20만3천명으로 공공보육원의 수용인원보다 몇배나 더 많은 수이다. child minder는 각 해당의 지방자치체에서 감독한다.

넷째는 어린이의 집에 입주하거나 통근하는 Nanie인데 몇몇 부모가 공동으로 한사람의 Nanie를 고용하여 Nanie에게 지불할 비용을 절약하고 Nanie의 부족도 해결한다.

그런데 이 경우의 Nanie는 감독기관이 없어 어린이의 보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지만 Nanie는 취업모의 탁아문제 해결에 큰 몫을 차지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밖에 자원봉사단체가 기금을 모아 운영하는 Drop in Center, Ginger Bread Center등 부모와 아이들의 복합시설도 큰 역할을 하는데 이들 센터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외출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에서 아이를 맡아 어린이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시탁아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 여러나라 중에서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다양하고 충실하여 취업모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를 맡기고 직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정책으로 넉넉한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을 1991년 현재 산전 6주, 산후 16주(둘째아이까지) 합해서 16주간인데 3째아이부터는 산전 8주, 산후 18주간으로 연장하여 여성들

에게 3째 아이를 낳고자하는 매력을 키우려 한다.

둘째, 감세 조치등으로 보육비용에 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충실하여 공적인 보육시설이 부족하여도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의 편이를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여 일하는 엄마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셋째, 공적자금에 의한 보육 서비스 다양하여 0~3세 아동뿐 아니라 3~5세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도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다.

넷째,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모제도등과 비슷한 보모들을 활용하여 낮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법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공공 보육시설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탁아 방법도 가지가지다.

첫째는 공립보육원인데 이곳에는 0~3세 아동을 맡아 돌보고 있으나 그 수가 충분치 못하여 입소 경쟁이 10대 1을 넘는다고 한다. 보육료는 양친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여러단계로 차등 납부하여 부모의 부담감을 덜어준다.

둘째는 아이의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한 보모를 공동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소규모의 지역보육원이 있으며 또한 보모 자신들 몇명이 모여 공동으로 어린이를 모아 맡아서 보육하는 가정보육원이 있고 전업주부를 위한 일시탁아소, 야간에 외출하는 양친을 위한 베이비씨터 그리고 에보개로 외국인 여학생을 고용하여 집에서 돌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보육 서비스에 국가는 보육비용보조금 지급, 감세조치에 의한 보육료 지원, 공적자금에 의한 공립보육원 설치운동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정부는 1991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의하여 6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진 부모가 양쪽다 피고용인인 경우 보육비용에 대한 감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감세의 한도는 실제비용의 25%까지이며 어린이 1

인당 년 1만5천프랑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친이 모두 근로자이며 자택보육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의 부모가 부모에게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특별보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간접적으로 가정보육의 지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건강, 사회보호성과 지방자치체의 복지국이 보육시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적자금에 의한 보육시설에는 해당 연령층의 어린이 중 20%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3세이하 아동 총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2세아동의 약 40%가 취학전 교육을 받았으며 그 나머지는 공동보육원, 유치원 및 개인 보육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3~5세의 취학전 아동의 95%가 취학전 학교(Ecole Maternelles)에 다니는데 교육시간은 오전 8시30분에 시작하여 16시30분에 문을 닫는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아이들중 절반 이상은 7시30분에 등교하여 오후 끝나는 시간까지 연장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 휴교일에도 종일 보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정보육소, 공동보육소등을 이용하는 부모에게도 지방자치체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은 당국에 등록 인가를 받아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절반이상이 등록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보육원 시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미등록 보모수도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기업

(전 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
국민연금 관리공단 상임이사)

새로운 가정상 확립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효도연금보내기운동에 즈음하여—

젊고 생활능력이 있을 때 부모님을 위해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부모님의 노후도 초라해지지 않고 본인들도 늙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이 운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되길 기대한다.

연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우리는 가끔 울적한 소식을 접하곤 한다.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아 갈 곳이 없는 노인들, 가정이란 울타리속에서 소외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 이는 어김없는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굳이 효를 숭상하던 과거의 전통을 돌이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가난했지만 인간다운 정이 넘쳤던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도 크게 변해버렸다. 물질을 숭상하는 시대적 조류앞에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관을 유지해오던 대가족제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가족구성원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데 우리의 가정은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전통적인 효개념은 과거의 가정을 지탱해왔던 가족구성원간의 계층적인 지배관계로 인한 권위적인 요소가 강하여 오늘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효의 현대적인 재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즉 현대적인 효개념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애정과 자녀가 부모에게 바치는 정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바람직한 새 가정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효도실천방법이 효도관광 또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 등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효도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도연금보내기운동을 들 수 있다. 노인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에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사망·장해에 대비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지난 1988년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올해 7월1일부터는 그 적용대상을 농어민에게도 확대하였다. 빠르게 1997년쯤 도시자

영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편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 매월 농어민들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농어촌지역 농어민에 한해서는 보험료중 일정금액을 보조도 해주고 각종 편의제도를 마련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농어촌 부모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 드리고 아울러 경로효친사상도 고양하고자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고향에 계신 부모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드리도록 권유하는 캠페인으로 "효도연금보내기운동"을 계획하게 되어 실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합리적인 효도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정년퇴직한 60대가 80대의 노부모를 부양하기란 아무리 효심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노약한 부모를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젊고 생활능력이 있을 때 부모님을 위해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부모님의 노후도 초라해지지 않고 본인들도 늙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이 운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될 때 전래의 경로효친사상이 신세대에 맞는 새로운 경로효친사상으로 재정립되리라 본다. 새시대의 가정상을 정립해가는 것도, 효도연금보내기운동의 성패도 가사운영권한을 쥐고 있는 여성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이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때 오늘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윤리적 위기는 극복되리라 확신한다.





방송 3사의 미니 시리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9월 27일 모임을 갖고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방영된 방송 3사의 미니 시리즈인 KBS2의 '바람의 아들'(손영목 극본, 김종식 연출), MBC의 '여'(이덕재 극본, 소원영 연출), SBS '째즈'(조희 극본, 오종록 연출)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토의하였다.

이번 대상 프로그램들은 소재의 다양함, 신인들의 기용과 기성연기자들의 수준 높은 연기가 어우러져 어느 때보다 각 드라마마다 개성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과다한 묘사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연의 남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빈번한 폭력 장면은 폭력에 대해 관대해지고 둔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폭력으로 하도록 조장하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으며 신세대에 대한 도식화된 표현도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며 지나치게 복잡한 사건 전개와 우연한 만남이 잦고 사건도 그에 의해 전개되는 등의 무리한 구성이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폭력의 미화

KBS2의 '바람의 아들'은 격랑의 세월을 헤쳐가는 형제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장홍표'(이병헌 분)의 삶의 방식이 거칠다보니 폭력이 난무할 수 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폭력장면의 횡수가 지나치게 많다. 9월 20일 방영분에서는 홍표의 술집에서의 폭력, 서울로 올라와서 시장 한켠에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휘두르는 폭력과 권산(신현준 분)의 고민을 술병이 나뒹굴고 거울을 뚫구멍으로 부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등, 폭력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들 속에 잠재해 있는 파괴 본능만 자극할 뿐 드라마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예전 같으면 상황을 암시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되는 장면을 구태여 길게 보여주는 것은 규제 완화를 틈탄 과잉 표현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도 상소리가 난무하는데 리얼리티를 살리기 보다는 국민의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상소리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바람의 아들'은 군산이 무대인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사무리를 쓰는데 비해 군산 토박이인 '이수학'(오지명 분)이나 그의 부인(김영애 분), 주인공들은 사무리를 쓰지 않는 것도 모순이며 신분제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점은 이 드라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드라마에서 항상 드러나는 고질적 문제였다.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로

신분을 가르는 것도 지방어를 사용하는 그곳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며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우연의 남발

MBC의 '여'는 불임으로 인해 이혼당한 여인이 아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유괴하여 자신의 딸로 키웠으나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로 갈등이 극에 달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우연의 남발로 극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서울행 버스를 탄 금순(이민영 분)이 가진 인형을 막 제대한 기수(정찬 분)가 우연히 보게 되고 또 우연히 알게 된 용설(신은경 분)의 인형도 또한 우연히 보게 된다. 금순과 같이 사는 남자가 하필이면 용설의 집에 도둑으로 들어와 또 그 인형을 보게 되는 등 작위적인 우연이 너무 많아 진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실소를 하게 만들고 있다. 우연의 일치는 드라마의 속성상 어쩔수 없는 장치라고 이해하기는 하나 이렇게 인과 관계없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리라고 본다.

고정관념의 표출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면 단연 신세대가 아닐까 싶다. 일부 지각이 모자란 신세대들의 행태를 전제 신세대들의 모습인양 낙인찍어 어디서

나 당연한 듯 그려내는 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SBS의 '째즈'는 그러한 일부 신세대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주면서 그들에 대한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곡해도 마찬가지로 예사롭게 하고 있다. 약물과 도박, 문란한 성생활과 빈부차에 대한 적의,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대담하게 건드리고 있는 이 드라마는 안방 극장에서 소화하기엔 벅하다는 느낌이다.

TV 드라마는 TV라는 매체가 가지는 성질로 인해 다른 매체에 비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제약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제약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나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양해진 소재

이번 대상 프로그램인 미니 시리즈들은 종래의 드라마들이 다룬던 진부한 삼각 관계에서 탈피

하여 다양한 소재를 참신하게 다루고 있다.

KBS2의 '바람의 아들'은 일제 때부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과 그로인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인과를 정치적 암투를 매개로 표면으로 부상시키고 있는데, 종래의 드라마가 거의 다루지 않거나 피상적으로만 다루었던 정치세계에 어느 정도 사실적 접근을 시도한 점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MBC의 '여'는 어린이 유괴라는 반 인륜적 소재를 유괴 당사자인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을 축으로 삼아 나름대로 잘 소화해내고 있는데 연기자들의 수준 높은 연기와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인다. 그러나 유괴범에 비해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자칫 문제의 핵심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SBS의 '째즈'는 추리극으로서 영상미를 가미하여 산뜻하며 스



피디하고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코믹하게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감각의 드라마이다. 그렇지만 매회마다 단비(정혜영 분)의 주변 인물 중 한 사람씩을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사건을 풀어 나가는 형식은 흥미롭기는 하나 지나치게 복잡한 구도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전에 비해 소재나 형식이 다변화되고 있어 우리 드라마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바람의 아들'에서 9월 14일 방영된 내용 중 홍표와 권산의 형(김영철 분)이 교통 사고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차에 치어 떨어진 장소(길가 도랑)에 거의 없는 낙엽이 사람이 누워 있는 곳만 유난히 폭신할 정도로 깔려 있어 눈에 거슬렀다. 그리고 '권산'이 나올 때마다 깔리는 음악도 너무 자주 사용되어 지루하게 느껴지고 한 여자를 두고 세 남자가 벌이는 사랑도 친 형제인 '장홍표'와 '권산'에다 양자로 들어간 '권산'의 형(손창민 분)이기에 도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여'에서는 '용설'이 긴 머리를 자르고(9월 18일) 친구와 술 마실 때와 그날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의 머리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실수는 조금만 주

이번 대상 프로그램들은 소재의 다양함, 신인들의 기용과 기성연기자들의 수준 높은 연기가 어우러져 어느 때보다 각 드라마마다 개성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과다한 묘사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연의 남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의를 기울여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째즈'는 단비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선정적인 장면이 많고 하늘(한재석 분)이 양주를 병째 마시는 장면 등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다. 또한 분실한 지 한달이 지난 ID카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정이나 심야에 '하늘' 집에 침입하는 햇빛촌 동아리들이 외국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바다'(조민기 분)가 빈부 격차에 대한 증오로 부자집을 털어낸다는 등은 너무 현실감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또 한가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드라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자리잡아 버린 '혼전 관계'와 '동거'라는 비합법적인 남녀 관계가 공공연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TV가 주는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동질화한다. 이들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지, 사회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지를 제작진들은 다시한번 고려해 주길 바란다.

정리 : 김희천(본회 매스컴모니터)

여 · 성 · 계 · 동 · 향

여성공동의 장 개관

여성들이 토론회를 비롯, 국제회의·각종 전시회·연극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넓찍한 「명식」이 생겼다.

한국여성개발원이 9월 28일 개관한 여성공동의 장은 크고작은 강의실 및 회의실로 이뤄진 교육관과 전시회·공연 등을 펼 수 있는 문화관 2개동으로 되어있다. 본관 옆에 2,295평 규모로 57억 4,500만 원을 들여 지은 여성공동의 장에는 행사참가자들에게 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딸려있다.

여성개발원은 여성공동의 장을 아·태지역 여성 훈련프로그램 등 국제협력의 터로 삼는 한편 여성의 의식·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여성문화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여성단체 등과의 매끄러운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개발·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위탁교육기관 지정

성폭력예방치료센터(대표 박상희·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9-10 국제화재 4층)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교육 공식수료증을 내줄 수 있는 교육기관은 6곳으로 늘었다. 현재 공식교육기관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개발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이다.

성폭력상담원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여성학·법학·의학·간호학·기타 관련학과 전공자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제한이 있다.

이들 위탁교육기관 지정은 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평등부부상 공모

정무제2장관실·여성신문사는 95년 제2회 평등부부상의 수상후보자를 찾아 12월중순이후 열리는 95국제여성전에서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94년 세계가정의 해를 기념해 제정된 평등부부상은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사회에 소개, 지혜로운 삶의 양식을 제시하기 위한 것. 제2회 평등부부상에는 특별상을 포함, 7쌍의 「평등부부」가 수상자로 뽑혔다.

가정속의 민주주의를 통해 건강한 부부상을 세우기 위한 평등부부상은 올해 5쌍의 수상자를 낼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보면 ▲의사결정과정이 평등하고 ▲재산권이 부부공동으로 이뤄지며 ▲가사노동에 부부가 힘을 합치고 ▲자녀교육·육아에 부부가 공동책임을 지고 ▲취미생활·기타 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부부로 되어있다. 자천, 타천이 모두 가능하며 추천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결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통, 동거가족이 모두 들어간 사진 1매. (02)565-0071

법정평등실현을 위한 모임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는 여성문제관련 재판의 모니터링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 등을 지원하는 남녀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모아 '법정평등실현을 위한 모임'을 최근 발족했다.

1기 법정평등모임 구성원은 남녀대학생·직장인·주부 등 20명. 이들은 두달에 걸쳐 가족법, 성폭력특별법, 모자보건법 등 한국의 여성관련법의 내용과 문제점, 재판과정 등 강의와 법정참관 등 현장실습교육을 마쳤다. 여성의 전화는 앞으로 매년

2회 교육을 하고 법정평등모임에서 일할 사람들을 키워낼 계획이라고.

성희롱대책 시민연대 발족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2심판결에서 원고 우조교가 패소한 것을 계기로 여성단체와 교육단체·사회단체 등 27개 단체와 개인 4명이 우리사회의 성희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고 뭉쳤다.

지난 9월 29일 서울 YWCA에서 발족식을 가진 「성희롱대책 시민연대」는 ▲대법원은 우조교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한다, ▲노동부는 성희롱 예방정책을 마련, 여성들의 일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을 포함시켜야한다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진정 남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사회라면 성희롱문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성희롱추방운동은 결코 남성에 대한 여성의 투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성희롱추방운동은 인간다움과 인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기에 때문에 앞으로 제2의 우조교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애국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데 노력하겠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시민연대 참가단체로는 대구여성회·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 서울YWCA등 여성단체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대총학생회, 경실련, 기윤실 등 사회단체 등. 개인으로는 방송인 오숙희씨, 김철기새누리신문사 사장, 윤수경이우정국회의원보좌관, 이재정성공회신학대학총장 등이 참여했다.

정무제2장관실, 성폭력 범죄 예방 소책자 펴내

정무제2장관실은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소책자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최근 펴냈다.

94년 4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그림을 곁들여 풀어쓰고 성폭력범죄의 실상과 예방책을 제시한 책이다. 명지대부설 여성·가족생활연구소가 정무제2장관실의 의뢰로 제작했으며 금융기관과 읍·면·동사무소, 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여성계, 10대과제 환영

여성의 공직진출비율을 2000년까지 2.0%로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추위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과제가 발표되자 여성계는 두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간여성단체들은 새추위 10대과제가 여성의 사회참여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정부의 결단을 반기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단체들은 이들 제도가 내실있게 꾸러지는지를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느라 부산하다.

10대과제 감시활동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손잡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주축으로 하거나 여성계와 학계, 사회봉사단체등을 규합한 별도의 조직을 통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추위 10대과제중 여성단체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여성의 공직진출비율 확대와 출산유급휴가시 급여의 공공부문 부담, 특히 행정고시·외무고시의 여성합격비율을 98년까지 15%, 200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은 「실속있는」 여성고용할당제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획기적인 금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체 공무원중 여성비율은 26.5%이지만 6·

7급은 10.5%, 정책결정적인 5급이상은 1.9%로 여성은 하위직 공무원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상당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가 새추위 10대과제를 다듬기위한 막바지 회의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과제.

지난 9일 실무회의에서 일부 차관은 「여성고용할당제가 실시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

이같은 반발을 딛고 여성고용할당제가 이뤄진다는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이 채택된 이후 각국 정부가 유엔의 「권장사항」을 지키기위해 애쓰는 분위기가 한몫을 한 것으로 여성계는 풀이한다.

공무원 여성할당제는 당장 취업의 좁은문에 막혀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려는 여대생들에게 푸른 신호등이 됐다면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문 분담이라든가 97년까지의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과후 아동지도제의 전국실시 등은 일하는 여성들의 짐을 한결 덜어주는 방안들이다.

이연숙여협회장은 「여성계의 오랜 외침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한다. 여성계 한편에서는 그러나 공기업의 여성가산점제도의 경우 여성합격자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아 자칫 형평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문 분담, 학교급식 전면실시 등이 재원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성희롱실태보고서

직장내 성희롱 등 성폭력문제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으며 대응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상담창구에 접수된 직장내 성폭력상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문제 비율과 고소등 법적 대응을 취하려는 피해자비율이 높아졌다.

93년 상담건수(1,185건)중 9.4%를 차지하던 직장내 성폭력은 94년 이후 95년 8월까지의 상담건수(2,570건)에서는 12.7%로 늘었다. 직장내 성폭력중 강간피해를 제외한 성희롱피해는 93년 50.8%이던 것이 94년 이후 53.7%로 높아졌다.

피해에 대응해 고소를 하겠다거나 고소를 준비하겠다는 상담자는 93년 18%에서 94년 이후 39.2%로 크게 늘었다. 다른 직장동료나 상사, 고용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대응방식도 93년 31%에서 94년 이후 34.6%로 늘었다. 성폭력상담소는 "그간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피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한다. 이는 94년 성폭력특별법 시행과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탓이라고 성폭력상담소는 풀이한다. 한편 성폭력상담소가 91년 4월부터 94년 12월까지의 상담사례(4,351건)중 11%를 차지한 직장내 성폭력상담(480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39.2%가 상사, 26.4%가 고용주로 전체의 65.6%가 상급자에 의한 피해였다. 가해자중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상습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13.5%로 직장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드러냈다.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여성인력이 사회참여를 늘리고 고용에서의 남녀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남녀고용평등의 달」행사가 10월 한달간 마련됐다.

정무제2장관실과 노동부가 공동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달은 지난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하나로 제정된 것.

정무제2장관실은 해마다 10월을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설정, 88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용에서의 성차별문제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남녀평등의식을 사회전체에 심기위해 세미나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5일 오전 10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노동부·정무제2장관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대회는 여성단체·근로자·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 및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10월 18일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개발원에서 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성인력 과학기술분야 활용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10월 17일에는 서울YWCA 주최로 「사무·행정직에서의 여성고용·인사·배치불평등 현황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밖에 남녀고용평등의 달 관련행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제32회 전국여성대회=10월 12일 류관순기념관, ▲한국부인회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 세미나=10월 18일 경제인연합회 4층 회의실, ▲부산지방노동청·부산여협 「고용평등의 정착과 여성취업확대」 심포지엄=10월 10일 코모도호텔-충무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활용」 대토론회=10월 10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화학연구소 대강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채용형태의 개선방향」 토론회=10월 25일 여성백인회관 8층 대강당, ▲한국여성단체연합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심포지엄=10월 18일 기독교연합회관 ▲연세대여성연구소 「여성과 직업」 심포지엄=10월 6일 연대 장기원기념관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표지의 말

류민자 작



류민자씨는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와 1981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했다. 1970년 하인두·류민자 부부전 이래로 12회의 개인전과 80년 서울신문창간 35주년기념 동·서양화 정예작가 초대전, 90년 예술의 전당미술관 개관 기념전외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을 열었으며 75년~77년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 현대미술전 및 79년~84년 프랑스 파리의 Art Sacre Art & Matiere Expression Spirituelle 초대, 79년에서 85년 프랑스 파리에서 Comparaisons전 등의 국제전을 가졌다.

제 3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및 Association Belgo-Hispanica Belgique 왕족상외 다수를 수상했다.

제32회 전국여성대회



본회는 지난 10월 12일 이화여고 내 류관순기념관에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21세기 생활전략'이라는 주제로 제32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21세기 삶의 행태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여성이 경제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된 이번 대회는 김영삼 대통령 내외, 김장숙 정무 제2장관, 주양자, 강선영, 손학규국회의원,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김영정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이경숙 숙대총장, 전직장관 및 국회의원등 전국의 여성지도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단체기 입장으로 시작된 개회

식은 정연실 대회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이연숙 대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제31회 용신봉사상, 제11회 올해의 여성상 시상후 김영삼 대통령의 치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주제강연은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21C를 앞둔 여성의 생활전략으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으며, 발제강연에서는 이정자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성민선 가톨릭대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가 '21세기 소비행태의 변화와 경제의식', '21세기 삶의 행태변화와 여성의 생활양식', '21세기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지위 확보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21세기를 구현하기 위한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했다.

점심식사후에는 '만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초청해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관련 10대 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북경세계여성대회 보고를 한 후 '여성의 주장, 100초 발언대'를 통해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의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용신봉사상 및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발표

본회는 지난 10월 4일 제31회 용신봉사상 수상자로 김향란 대구전문대학 학장을, 제11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이영애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제희 광명시장을 선정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록수의 최용신 여사를 기리는 사회봉사부문의 용신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향란 학장은 가난한 임산부 무료조산, 나환자 돕기, 벽지어린이에게 도서 기증, 불우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소년

소녀가장 및 모자 영세민 세대와 생활보호대상자 돕기, 대구전문대 부설 노인대학을 설립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제주영송학교를 설립하여 정신지체와 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에 힘써온 공이 인정됐다.

한편 이영애 부장판사는 서울 법대 수석졸업과 제13회 사법고시 수석합격, 여성 법조인으로서 최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9월 여성으로서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어 사법부 및 여성전반의 지위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전제회 광명시장은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임명된 후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 최초의 여성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어 여성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10월 12일 오전 10시 이화여고내 류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있었다.



재일 대한민국부인회 초청간담회

본회는 지난 10월 14일 낮 1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재일 대한민국부인회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일 대한민국부인회 최금분 회장을 비롯한 중앙본부 임원 등 85명과 본회 임원진과 회원단체장, 한국여성개발원 등에서 126명이 참석하였다. 이연숙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최금분 회장이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일일이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서로간의 동포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95 지자제 참여 여성후보자 격려회

할당제도입을위한여성연대(공동대표: 이연숙, 이미경)에서는 9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95년도 대표자 회의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사업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4시부터는 '95 지자제 참여 여성후보자 격려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회관 1층 중앙홀에서 할당제도입을위한여성연대 주최, 국회사무처후원으로 열린 이번 격려회는 지난 6월 27일 실시된 지자제 선거에 출마하여 선전했던 여성 출마자를 격려하기 위한 모임으로써 당선자뿐만 아니

라 아쉽게 낙선한 후보자도 참여하여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세추위의 여성관련 10대 과제, 환영성명서 발표

본회는 지난 10월 11일 발표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10대 중점과제에 대해 내용의 전반적인 부문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이었던 여성부 설치문제가 백지화되고 공기업의 할당제 조치가 인센티브 제도로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

쉬움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하였다.

동정란

본회 출판공보위원인 박금옥 위원은 중앙일보 심의위원의 부장에서 부국장으로 승진되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조리기능사 교육생 모집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리기능사 교육생을 모집한다.

조리기능사는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국가조리기능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다 음 —

- ①개강일시: 1995년 11월 1일
- ②교육과정: 3개월
- ③교육시간: 오전 10시30분, 오후 6시30분
- ④교육내용: 한식, 양식 전문조리교육
- ⑤문 의 처: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
(02) 833-1623~4

한국우먼스클럽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한국우먼스클럽은 지난 9월2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가했던 회원 5명의 보고회가 있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국측이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한 우정의 텐트 소개와 민간 단체들의 각종 워크샵과 심포지움 내용 등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 본 클럽 소속 성아청소년 출신인 김나은양이 참가하여 차세대 회원의 관심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한·중여성교류협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참석, 활발한 교류활동 전개

한·중여성교류협회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 회장단 및 회원 10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상해에 도착, 상해시 부녀 연합회를 방문하고 상호 친목도모 및 양국의 여성문제에 관해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두나라 여성의 교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또한 북경 NGO 여성대회 세미나에서 하영애회장은 "한국신라시대 세 여왕의 통치와 전통문화"의 주제 발표를 통해 선덕여왕, 진덕여왕, 전성여왕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당시 신라시대 여권신장은 지금의 서구적인 여권시대를 능가했음을 제시하였다.

본 협회 회원들은 북경대학의 여성문제 연구중심 정필준 교수, 왕춘매 교수 등 10여명의 교수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여성문제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한간호협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예정

대한간호협회는 모유의 우수성과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여건을 조성하고,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며 이들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모유수유실천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적인 규모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따른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20일 1차 예선을 거쳐 10월 30일 최종 심사를 통해서 10명의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하게 된다.

선발대상아는 생후 6개월 전후(95년 10월 30일 기준)의 건강한 모유수유아로서 선착순 1백명에 한하여 간협에서 직접 참가신청을 받는다.

최종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모유수유아 중 1명에게는 3백만원 상당, 장려아 1명에게는 1백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저축성 상품이 지급되며 예선 통과자와 최종 선발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도 10만원의 상금 또는 상품이 수여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보건소와 종합병원 소아과 및 간호부, 소아과 의원등에 건강한 모유수유아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대회 포스터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건강한 모유수유아들의 대회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여성문제 연구회

나선길 부산지회장 출판기념식

여성문제 연구회는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 부산일보사 10층 대연회장에서 여성문제연구회 나선길 부산지회장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정년기념 문집으로 「여성과 사회」에 대한 출판기념식이 있었다. 본회 윤용숙 회장과 이사가 참석하여 부산지회의 설립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나선길 지회장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부산지회 이사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본회 회장이 지회를 위한 후원금도 전달하였다.

제32회 전국여성대회 뒷마무리 봉사

또한 본회에서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2일 제 32회 전국여성대회가 끝난 뒤 본회 이사 및 회원 19명이 자청하여 회의장 안팎을 정성껏 뒷마무리 하였다. 「100초 발언대」를 통하여 본회 윤용숙 회장은 "나와 환경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속에서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상부상조하며 공존하지 않을 수 없는 불이(不二) 입을 알고, 나의 환경을 내 스스로 지키며 가꿔 나가겠다는 높은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자각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홍보안내대에서는 본회 소식지와 안내서를 대회 참석자에게 배부하였다.



한국여학사협회

KAUW FORUM 열릴 예정

한국여학사협회는 20년 동안 해 온 주요사업중 하나인 영어로 말하고 토론하는 KAUW FORUM이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아메리카 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오후 12시 영국대사관 저에서 FORUM 운영회를 가진 후 '95년도와 '96년도 포럼 일정 및 주제를 선정, 발표했다.

'95년 10월과 11월, '96년 1월, 2월, 3월, 4월에 걸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21st Century-Global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ate	Topics
Oct. 19, '95	Ozone Hole and Its Impact
Nov. 23, '95	Reform of Education in Human Development
December	No Program
Jan. 18, '96	Communication-Information Highway
Feb. 15, '96	A New Look into Family Structure
Mar. 21, '96	Preventive Measures of Social Problems : Aids, Drugs, etc.
Apr. 18, '96	My Personal Expectation and Hope in the Coming Century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 •

김정자 (재일 대한민국부인회 서동경지방본부 회장)	24,000원
홍금산 (홍금산무용학원 원장)	10,000원
김한경 (KPR & ASSOCIATES, INC 대표이사)	10,000원
김수영	10,000원
안희련	10,000원
유영희	10,000원
변해영	10,000원
정하영	10,000원
심순자	10,000원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편집 후기

지난 북경 세계여성회의의 열기를 이어 받아 본회가 주최한 제32회 전국여성대회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의 생활전략과 여성지위 확보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21세기에는 경제주체로서 여성의 자리가 더욱 확고히 설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비한 여성들의 자기계발에의 노력을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5년10월호 통권334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이연숙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식 · 편집 : 한라기획

발행날짜 : 1995년10월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5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서은경

위 원 :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 이선명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부	회	장	이	연	숙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7-707	795-2233
부	회	장	박	연	혜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75-304	599-1942
부	회	장	정	옥	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909	783-2924
서	기	이	이	희	기	대구시 북구 노원2가 313-12	053-944-1300
회	이	사	최	인	순	중구 을지로3가 지하상가 3구역 근화사 약국(11호)	272-4986
회	이	사	이	요	식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503-4691
감	이	사	양	은	숙	강북구 수유5동 510-20	902-1001
감	이	사	김	옥	한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561-2630
조	직	관	리	위	애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032-503-3493
기	회	연	구	위	숙	중로구 관철동 260 세련빌딩 501호	732-9585
재	정	위	원	원	덕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 청솔마을 성원아파트 703-1802	0342-713-3078
출	공	보	위	원	경	서대문구 북이현동 1-316	362-3687
국	제	관	계	위	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16-1002	0342-701-1436
근	로	여	성	위	자	강남구 개포동 강남아파트 1-208	574-2490
사	비	자	무	호	주	양천구 목1동 목동아파트 505-501	648-2002
					래	용산구 한강로3가 40-316	792-5050
						강남구 역삼1동 670-12	567-3234
						노원구 중계본동 4블럭 산동아아파트 115동 603호	934-7866

회 원 단 제

회 원 단 제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중구 병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귀옥숙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한국여학사협회	한말숙	도봉구 상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주애영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박영옥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김경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김하준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인숙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박최옥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곽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오피스텔 507호	784-4851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이예준	종로구 광창동 537-9	379-1872
우리웃음꽃협회	왕현순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서문수	종로구 제부동 45-2	736-4857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김숙희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대한영양사회	김기영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아빌딩 501호	549-5161
국제여성승공연합회	김영수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통일여성안보회	김숙희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정영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정운상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회복력여군회	박하영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44-5208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희	성북구 용답동 236-10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박정영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일여성친선협회	송성미	강남구 청담동5 경원하이츠텔 710호	546-5350
한·중여성교류협회	김보희	중구 옥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일여성친선협회	김보희	광진구 화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회	김보희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김보희	강남구 논현동 192-6 법한빌딩 3층	545-6789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보희	종로구 견지동 39-1 삼운중심 2층 1호	738-5586
천도교여성회본부	김보희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김보희	강서구 등촌동 645-11	606-9417